공조

2017
WINTER
VOL.046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Bi-annual Magazine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정책 가이드
법률문제 걱정 없이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이용해보세요

한마음걷기축제
단풍도 질투했던
세계인의
한마음걷기축제

타운 스케치
마부하이, 혜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여행하라!

상원약밥

중국인을 사로잡은 음식

까마귀에게 보은하는 음식

약밥은 정월대보름(상원上元)에 먹는 절식(節食)이자, 꿀을 넣어 몸에 좋은 밥이라는 뜻에서 상원약밥이라 부른다. 『삼국유사』를 보면 소지왕 10년 정월 보름날, 까마귀 떼가 날아들어 '뜯어보면 두 사람이 죽고, 뜯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는다.'는 말이 쓰인 봉투를 떨어트리고 갔다고 한다. 왕이 봉투를 뜯자 '내전 별실 금갑에 활을 쏘아라.'라는 글귀가 있었다. 왕은 금갑에 활을 쐈고 그 안에는 왕비와 승려가 있었다. 둘은 왕을 죽일 모략을 꾸미고 있었고 왕은 까마귀 덕에 화를 면했다 여겼다. 그 후 정월대보름을 까마귀에게 감사하는 날, 오기일(烏忌日)로 정해 까마귀처럼 짙은 빛의 약밥을 지어 제사를 지내고 먹이로 주는 풍습이 생겼다. 허균이 팔도의 진미를 소개한 『도문대작』을 보면 중국인이 달짝지근하고 오묘한 향이 나는 약밥을 좋아해 이를 모방한 '고려밥'을 지어먹는다는 기록이 있으니 어쩌면 약밥이 원조 한류 음식은 아닐까?

국민과 외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We aspire for a society where foreigners and Koreans coexist.

공존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17년을 떠나 보내며 2018년 무술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다짐을 갖게 하는 새해의 시작은 늘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황금 개'의 해를 맞아 공존인 여러분도 빛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 재정착 난민 수용, 4세대 고려인 등 동포의 한시적 구제조치 시행 등 인권 존중의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의 아픔을 해소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새해에도 국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국민과 외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공존인 여러분들의 행운과 평안이 가득한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Dear Gong-Zone readers,
Eventful and bumpy 2017 nears an end and we are at a time to be ready to ring in 2018. Welcoming a new year with fresh New Year's resolutions is about excitement and hope for all. I sincerely wish you the best in 2018, the year of the Dog.

This year,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has put human rights at the centre of our policies. Some signature policies includes an expanded nationwide implementation of Village Lawyer Programme for foreigners, accepting resettled refugees and temporarily offering long term residence permits for fourth generation Korean Russians. We put special emphasis on supporting foreigners in need, addressing their difficulties and improving their rights.
Throughout the coming year, we will endeavour for better policies, with greater engagement with the Korean people, that fit the people's needs and implement well-crafted policies to create an environment of Koreans and foreign national living in harmony.

We wish you all the best in the coming year. Happy New Year!

Commissioner, Korea Immigration Service
Cha, Gyu-geun

공존
2017 WINTER VOL.046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immigration.kr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

Soci Net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표지이야기
한국인 강은경 선생,
미국인 조세린 교수
이어지지 않을 것 같던 둘의
인연을 묶어 준 것은 한국의
전통 국악이었다.
어려운 점이 많지만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함께 무르익어가는
그들의 소리 이야기를
들어보자.

**〈공존〉을
앱북에서도 만나보세요!
여름, 겨울
업데이트 됩니다.**

ios용 Android용

〈공존〉 2017 겨울호 통권 제46호 비매품
편집인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 **발행일** 2017년 12월 | **발행처**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Tel** 02-2110-4019 |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
기획 및 디자인 (주)더쎄븐파트너스 **Tel** 02-2038-7700 | **인쇄** 문덕인쇄 **Tel** 02-462-8980

CONTENTS

02
테마 엿보기
유래가 더 맛있는, 상원약밥

03
EDITOR'S MESSAGE

06
THEME INFO

08
공존에세이
한복과 전통에 경계란 없다
한복 여행가 권미루 씨의 아름다운 도전

10
타운 스케치
모두들 환영해!
마부하이(mabuhay) 헤화!

16
Old & New
시간을 뛰어 넘은 비교
승경도 놀이 VS 보드게임

18
People & People
예술의 뚝심이 닮은 강은경 선생과
조세린 교수의 신명 나는 소리 한마당

22
생활의 발견
행복한 결혼 생활을 비는 각국의 결혼 풍습,
전통 혼례와 비교해보자

24
정책가이드
법률문제 걱정 없이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이용해보세요

28
출입국 사람들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동장군도 녹이는 열정이 있다

30
요즘 뜨는 한국어
신조어도 배우고 한국의 이슈도 배워보자
'답답한 세상, 사이다가 필요해!'

32
공존하는 사람들
다양한 재한외국인에게 듣는
그들의 한국살이와 꿈 이야기

34
한마음걷기축제
단풍도 질투했던 세계인의
한마음걷기축제 현장 속으로

38
공존 PLACE
출입국 • 외국인지원센터
생의 끝자락에 선 이들에게 희망을

42
전문가 기고
인구절벽에 서서
이민정책을 고민하다

44
출입국 NEWS
하반기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의 주요뉴스

48
당신의 한국을 보여주세요
〈공존〉 사진공모전 결과 발표
〈행복, 한 보따리 담아서: 한국의 전통시장〉

50
공존 Special Focus
도올 김용옥 선생과
출입국의 미래를 논하다

51
Welcome to the temple
2018 평창 올림픽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전통, 세계와 通하였느냐?

지난 2003년에 방영한 사극 '대장금'은 해외 91개국에 수출되며 큰 인기를 누렸다.
일회성일거라 여겼던 사극 열풍은 후에 '주몽'으로 까지 이어지며 꾸준한 인기를 보여줬다.
당시 대장금과 주몽을 보며 한국에 대한 관심을 키우던 '사극 키즈'들 때문일까?
2017년,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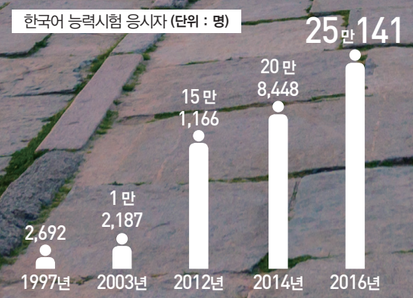
정리 편집실

2016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25만 141 명 지원

TOPIK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 · 평가하는 시험으로 첫 시행한 1997년과 비교하면 약 90배 대폭 증가한 수치고 2017년 예상 응시생은 30만 명을 넘을 거라고 하니 20년 만에 100배가 넘게 늘어난 셈이다.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 (단위 : 명)



2017년 시험은 전년대비 1개 국가, 45개 지역이 늘어난 73개국 268개 지역에서 치러진다.

시험 실시 국가 : 한국, 아시아, 북중미, 남미,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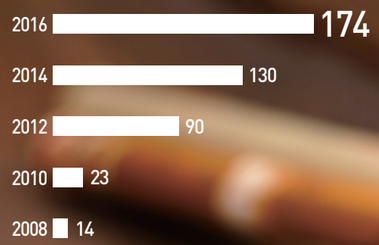
세계 곳곳 '가나다' 한글 배우는 소리~

58개국 174학당

(201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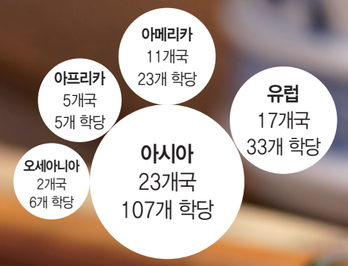
국어기본법 제11424호에 의거해 설립된 세종학당재단은 국립국어원의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모형'을 기반으로 표준교육과정을 마련하였으며, 1~2급은 초급, 3~4급은 중급, 5~6급은 고급(심화과정)으로 구분된다. 또 전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과정의 한국어 교육을 제공 중이다.

연도별 세종학당 수 (단위 : 개)



(출처 국어정책통계 연보 201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세계 세종학당 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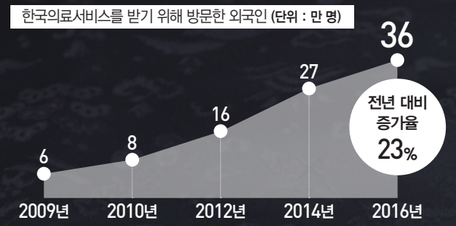


펠프스도 사랑한 한방, 의료한류를 타고 높이 나르샤

한국의 선진화된 의료 기술과 시스템으로 의료관광을 온 외국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동시에 한국의 '부황컵'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기도 했을 정도로 한방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새싹 산업이다.

2016년, 한국의료관광 외국인 36만 4천 명 (전년 대비 환자 수 23% 증가)

한국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방문한 외국인 (단위 : 만 명)



한방병원의 환자 수 자체로만 보면 아직 의료관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진 않지만 외국인 환자의 증가세는 괄목할만하다.

진료과별 전년 대비 환자 수 증가율 (단위 : 명)

권미루의 조금 특별한 마실

한복, 세계를 여행하다

어린 시절 동화 속 공주님의 옷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눈부신 햇빛을 부드럽게 투영하는 커튼을 몸에 감고 이국의 공주가 된 것 같은 기분을 즐기곤 했다. 왕가 사람들이 입는 옷에 대한 동경, 내 손이 닿는 곳엔 한복이 있었다. 시도때도 없이 한복을 입었다. 날이 좋아서, 새해가 밝아서, 생일을 맞아서. 더없이 예뻐 보이고 싶은 그럴 때면 한복을 입었다.

세계와 함께한 시간, 고이 접어 나빌레라

내가 '한복여행가'라는 명칭을 만들고 한복만 입고 여행하기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은 2013년도였다. 국내에서 여러 한복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나만의 한복에 꽤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입다 보니 어느새 내 몸에 익었고, 편안함으로 입는 옷이 아니라 가치로 입는 옷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한복을 입고 어디까지 가서 무엇까지 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그렇게 시작된 여행을 통해 전통과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자신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의 취향과 생각을 존중했고, 나도 그러했다. 전통에 대한 사랑은 오히려 큰 포용력을 발휘한다. 외국인들은 한복을 드레스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숙소에서 만난 피오레 할아버지도, 아이슬란드 마트에서 만난 할머니도, 핀란드에서 만난 대학생 멀린도, 라오스에서 만난 프랑스인 마르틴도. 한복치마의 종처럼 퍼지는 모양과 색감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전통 옷이 가진 특별함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이탈리아에서 만난 현지 가이드 비올라는 한복치마 속 비밀에 대해 물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풍성한 핏을 유지하면서도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했다. 치마 안 하얀 속치마의 모습을 살짝 보여주니 겉으로 드러난 치마핏이 아름답다며 연신 칭찬했다. 이 옷의 이름은 무엇인지, 어디에 가면 살수 있는지 물어보던 그들이 언젠가는 한국에 방문해 자신만의 맞춤 한복을 장만할 수 있기를 바랐다.

> *"한복은 나와 같이 있었고 우리는 함께 일반인이 갈 수 있는 안나푸르나의 가장 높은 곳에 도착했다. 이제 한복을 입고 불가능한 것은 없어 보였다."*

베트남인 '수아'는 본국에서 한국 민요를 접하게 됐다. '사랑가', '너영나영' 등 가사는 외우기 어려웠지만 특유의 창법과 독특한 느낌에 금방 빠져버렸다고 한다. 민요를 좋아했던 그는 한국악기를 알게 됐고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다고 말했다. 작년, 베트남 한국 문화원에서 그를 만났을 때, 한국인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한국어 실력이 유창해 매우 놀랐다. 함께 근처 호안끼엠 호수로 한복 나들이를 가기 전 흐엉, 히엔, 린 등 베트남 친구들의 한복을 속치마부터 직접 입혀주었다. 속치마 후크를 앞으로 돌려 단단하게 고정시켰다. 치마끈은 양쪽으로 팽팽하게 잡아당겨 몸통에 딱 맞게 하여 고름처럼 묶었다. 저고리를 입고 마지막 팔(八)자 주름을 잡아 주는 것까지, 완벽했다. 우리는 같은 한복을 입고 하노이의 노을을 보았다. 모두 아무 말 없었지만 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것 만으로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하늘이 붉게 변해 가는 만큼 우리가 함께 한 시간들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물들었다.

안나푸르나에 오른 한복, 시간도 국경도 무너지다

네팔 데우랄리 롯지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트레커들이 있었다. 나의 조바위와 그들의 털 모자를 바꾸어 써 보았다. 황금색 저고리가 그 추운 산장에서 어떻게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지, 정수리가 뚫린 형태의 한국 전통 쓰개가 왜 고산병을 예방해 주는지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다. 그저 서로의 것을 교환해 직접 느껴보면 될 일이었다. 호주에서 온 카리나, 폴란드에서 온 오머, 스웨덴에서 오신 이름 모를 아저씨까지. 그들에게는 그날 밤 느꼈을 따뜻한 아시아의 쓰개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포터 '디'와 함께 안나푸르나 4,130m 베이스캠프에 도착한 날, 펑펑 울었던 이유는 트레킹이 고돼서도 몸이 힘들어서도 아니었다. 마음 속에 있던 한복과 전통의 한계가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바위와 계단, 끝도 없는 길을 걷는 순간에 한복은 나와 같이 있었고 우리는 함께 일반인이 갈 수 있는 안나푸르나의 가장 높은 곳에 도착했다. 이제 한복을 입고 불가능한 것은 없어 보였다. 완벽한 확신이었다.

전통이란 어느 특정 시기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그랬듯,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필요와 가치가 모여 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다양한 방향으로 분화한다. 내가 입는 한복도, 활동하고 있는 한복문화분야도 그 수많은 갈래 중 하나다. 그렇기에 전통과 문화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도 끊임 없이 변화한다. 그렇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의 전통을, 나의 문화를 향유하고 즐기고 싶다. 나만의 방식으로 말이다.

(환영합니다) Mabuhay 마부하이, 혜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여행하라!

매주 일요일 여권 없이 교통카드만 있다면 필리핀을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 '리틀 마닐라'라는 별명이 붙은 혜화동이 바로 그곳. 인근 성당에서 열리는 따갈로그어 미사에 참석하기 위한 필리핀 이주민의 방문 덕에 더욱 풍성하고 동그랗게 피어나는 혜화동 로터리의 일요일. 공존과 함께 떠나보자.

글 이지은 사진 김윤희

먹고 필리핀 마켓, 고향의 밥심 혹은 이국의 별미

일요일 혜화역 1번 출구를 나서면 필리핀 이주민이 운영하는 장터를 만날 수 있다. 노점상의 수는 15개 정도로 큰 규모가 아니지만 필리핀 정취를 느끼기엔 충분하다. 손짓을 동원해가며 흥정하는 모습도 꼭 현지에 와 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호기심 가득한 한국인의 방문도 많아 내 · 외국인이 한데 섞여 문전성시를 이룬다.

이 특별한 장터가 혜화동에 둥지를 틀게 된 것은 근처 혜화동 성당 때문이다. 1996년, 필리핀 신부가 혜화동 성당에서 일요일마다 현지어인 따갈로그어로 미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필리핀인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고향사람을 상대로 생필품과 먹거리를 파는 시장이 형성됐다.

하지만 2010년, 필리핀 마켓은 도로법 위반과 불법노점이라는 이유로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된다. 마켓은 이주민의 삶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필리핀 공동체와 종교계가 진정서를 냈다. 한국인들도 10년이 넘게 이어져온 이들의 문화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이곳만의 독특한 '믹스컬쳐'가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다행히 필리핀 마켓은 퇴거의 위기를 넘겼고 지금은 명실상부 혜화동 로터리의 명물로 자리 잡았다.

필리핀도 우리나라처럼 식민지배를 당하는 아픈 역사가 있다. 380년이라는 긴 시간이었는데 그 중 330년을 스페인 지배하에 있었기에 필리핀에는 스페인과 동남아의 퓨전 요리가 많다. 혜화동 필리핀 마켓에도 이런 음식을 맛볼 수 있는데 튀긴 왕만두처럼 생긴 '엠빠나다'이다. 내용물도 만두와 비슷하게 고기와 당근, 양파, 감자로 채워져 있어 한국인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또 코를 자극하는 돼지고기 꼬치구이 역시 필리핀의 대표음식이다. 지방이 적당히 붙어 고소하고 불맛 가득한 꼬치구이는 단돈 천 원으로 가격까지 착하다. 튀긴 바나나에 시럽을 뿌린 '바나나큐'는 쫄깃하면서 새콤달콤한 맛이라 아이들에게 인기만점이다. 필리핀 식료품을 파는 마리아 씨에 의하면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한국인들이 많아지면서 한국손

님의 비중이 늘었다고 한다. 두리안이며 망고를 계절 없이 팔고 있고 맥주안주로 인기가 많은 '짜짜룬(돼지 껍데기튀김)'은 산미구엘 맥주와 함께 한국인이 자주 사가는 품목 중 하나다. 알록달록한 패키지의 식료품, 꽝꽝 얼린 필리핀산 생선까지 없는 게 없지만 그 중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가는 품목은 필리핀 버전의 코코아 '마일로'이다.

왠 코코아가 인기인가 싶겠지만 마일로는 40대 한국인에게 추억의 음료이다. 지금은 한국에서 찾기 힘들지만 70~80년대 한국에서 마일로는 부의 상징이자 우유에 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이었다고 한다. 동남아인이 그려진 마일로가 한국인의 추억의 맛이기도 하다는 사실에 상인들도 재미있다는 반응이다. 마켓 길 건너편엔 이주민의 향수병을 달래 줄 식당도 있다. 역시 일요일에만 여는 식당의 이름은 'KAINAN SA HYEWA(카이난싸혜화)' 번역하면 혜화동의 식당이란 뜻으로 주로 현지인 손님이 많다. 7천 원만 내면 밥과 먹고 싶은 반찬 두 가지를 선택해서 먹을 수 있다. 식당을 연지 10년이 넘었다고 하는 주인 베르나 씨는 일요일 장사를 위해 집에서 반찬을 손수 만들어 온다. 소고기로 만든 '칼데레타'는 한국의 갈비찜과 비슷하고 '판싯'은 면과 야채, 고기를 볶아 만들어 잡채와 비슷해 한국인이 많이 찾는 음식이라고 한다. 식당 안에는 노래방 기계도 있는데 필리핀만의 독특한 문화이다. 따로 노래방이 있지 않고 식당에서 공개적으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가끔 음치가 마이크를 잡으면 싸움이 나기도 한다고.

3人3色 Interview

한국인 손님도 필리핀 손님도 모두 맛있대요~

필리핀 마켓 상인 **비올레타**

"평일에는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일요일에는 이곳, 혜화동 필리핀 마켓에서 음식을 팔아요. 단순히 노점 요리라고 쉽게 보시면 섭섭해요. 기구가 다 갖춰진 가게에서 음식을 만들어오니까요. 한국에서 필리핀 맛을 내기란 어렵지만 그래도 재료 구하기가 생각보다 수월해서 괜찮아요. 한국 식재료로 대체해도 이질감이 없고요. 장사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한국어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남편이 많이 도와줘서 든든해요. 새해에도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모든 이가 형제 자매가 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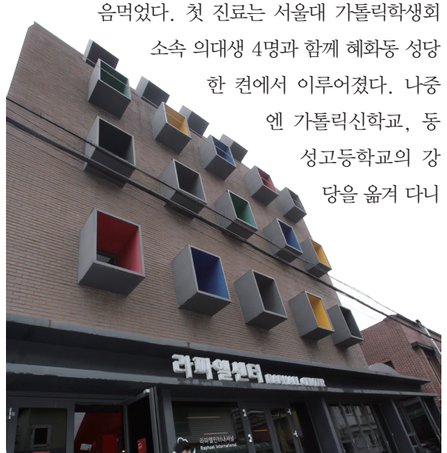
필리핀 거리 형성에 시발점이 된 혜화동 성당은 일요일 오후 1시 30분, 필리핀 신부가 집전하는 따갈로그어 미사가 열린다. 성당 밖으로 은은하게 새어 나오는 아름답고 이국적인 찬송가는 성가대가 매주 5~6시간씩 연습한 결과다. 필리핀은 인구의 80%가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타국에서 현지어로 미사를 올릴 수 있는 혜화동 성당이 그들에게 큰 안식처가 됐을 것이다. 참여 인원은 2천 명에 달하고 먼 지역에서 '원정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도 많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5년째 성당을 다니며 미사를 돕는 복사 역할까지 하고 있는 비셀 씨는 "일요일은 가장 행복한 날."이라며 "낯선 땅에서 생활하는 우리에게 고국의 말로 기도할 수 있는 이곳은 마음의 안식처와 같고 어려움을 나누는 장이 되기도 한다."고 했다. 실제로 미사 때 들어오는 헌금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몸이 아픈 필리핀 이주민을 위해 쓰인다.

혜화동에서 따갈로그어 미사를 집전한지 올해로 2년이 된 알프레도 신부는 필리핀공동체도 이끌고 있다. 누구보다 이주민의 심정을 잘 아는 그는 함께 어울려 산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길 기도한다. 오후 3시, 미사를 마치고 나온 알프레도 신부가 신도들의 말을 들어주기에 여념이 없다. 우리는 사제를 '신부님'이라 부르지만 영어로 부르면 'Father'가 된다. 이주민의 '한국 아버지'가 되어 같이 웃기도 하고 때론 근심 어린 표정을 짓기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미사에 참석하는 필리핀 이주민이 왜 그렇게 많은지 이해가 간다. 성경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려고 이집트를 탈출했고 예수의 가족이 계시를 받고 이집트로 피신했듯 인류에게 이주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혹은 먹고 살기 위해 이동한다. 삶도 천국으로 가기 전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이기에 결국엔 누구나 이주민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한 알프레도 신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 모두의 처지가 같아 이주민에 대해 편견을 가진다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사랑하고 외국인이 주인이 되는 곳이 있다

혜화동은 자애로울 혜(惠)와 변화시킬 화(化) 자를 쓴다. 자애로 변화시킨다는 이름에 걸맞게 혜화동엔 이주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라파엘클리닉(이하 라파엘)은 1996년, 누명을 쓰고 사형수가 된 파키스탄 노동자가 김수환 추기경에게 보낸 편지 한 통에서 시작 됐다.

김 추기경의 끈질긴 노력 덕에 이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이 과정을 함께했던 지금의 라파엘 대표이사 안규리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무료의료봉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첫 진료는 서울대 가톨릭학생회 소속 의대생 4명과 함께 혜화동 성당 한 켠에서 이루어졌다. 나중엔 가톨릭신학교, 동성고등학교의 강당을 옮겨 다니며 활동을 이어나갔고 살림살이도 나무궤짝에서 리어카, 마지막엔 트럭으로 날라야 할 정도로 늘어났다. 지금은 서울대교구의 무상임대로 독립적인 건물을 갖게 되어 그곳에서 더욱 체계화된 의료활동을 펼치고 있다.



첫 무료진료를 시작했던 혜화동성당에서 5분 거리인 라파엘의 보금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17년의 시간이 걸렸다. 알록달록한 진료소 외관처럼 '각양각색'이라는 단어는 라파엘을 상징하는 단어이다. 환자를 호명할 때 이름 앞에 국적을 붙여서 불러야 할 정도로 다양한 나라의 외국인이 찾아오고 있으며, 의료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군의 봉사자가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다. 법률상담은 물론 대기하는 동안 빈속을 채워줄 간식 담당, 마음을 채워주는 미소담당 봉사자까지 다양한 봉사자가 있다고 한다.

3人3色 Interview

온돌처럼 오래가는 의료봉사를 위해

라파엘클리닉 대표이사 **안규리**

"라파엘의 일요일은 정말 바빠요. 35명 의료진과 110명 가량의 봉사자가 400명 이상의 외국인 환자를 케어하죠. 라파엘과 함께한 시간이 길어 질수록 느끼는 것은 정직과 진심의 중요성입니다. 몽골 분들은 허리가 아픈 것을 콩팥이 아프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단지 언어나, 이론으로 접근해서는 이분들의 아픔을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듣고, 말하고, 행동하려 노력합니다. 한국의 의료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날 한국 원조 프로그램 중 하나인 '미네소타 프로젝트'덕분입니다. 그때 아낌없는 후원을 받아 한국 의료계의 기반을 확립할 수 있었죠. 라파엘은 국내에서뿐 아니라 몽골, 미얀마, 네팔, 필리핀에서도 무료진료를 하고 의료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키웠던 사랑을 되돌려 주어야 하니까요."

지 곳곳에 넘쳐난다. 진료소임에도 불구하고 만국기가 운동장에서 펄럭이듯 아름답고 활기찰 수 있는 이유다.

필리핀 마켓의 건너편에 있는 혜화동 우리은행은 일요일이면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곳으로 바뀐다. 오픈시간인 10시부터 은행 일을 보기 위한 외국인으로 북적거리고 마감은 4시지만 사람이 많다면 5시 반까지도 유동적으로 운영한다. 미사를 보기 위해 많은 필리핀 이주민이 혜화동에 오고 이들 대부분은 일요일 외에는 개인업무를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요일에도 영업을 하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사도 있어 이곳을 방문하면 보다 수월하게 은행 일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카드복제피해로 인해 돈이 빠져나가고 있던 이주민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등 다른 지점에선 언어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업무도 이곳에 오면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 필리핀 책과 DVD등을 빌려 볼 수 있는 깨알 같은 편의도 제공 중이다.

여행하라 거대한 화랑, 이화벽화마을

필리핀 마켓에서 마로니에 극장방면으로 15분정도 걷다 보면 외국인이 많은 또 다른 명소가 나타나는데 바로 이화벽화마을이다. 이화벽화마을은 최근 외국인의 여행패턴이 현지 문화가 녹아있는 곳을 방문하는 경향으로 바뀌면서 떠오르는 여행지가 됐다. 1950년대 후반, 판자촌이 형성 됐던 이 동네는 2006년 소외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낙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70여 명의 작가가 벽화와 조형물을 설치했고 각종 방송에 소개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좁다란 골목길에 그려진 벽화와 낮은 키로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 사이에 설치된 조형물의 하모니가 이화벽화마을을 거대한 야외 갤러리로 만들어주고 있고 상점 역시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많아 어디서 찍어도 '포토 명당'이 된다.

3人3色 Interview

외국인 근로자의 땀방울이 모이는 곳이라 더 신경을 써서 일합니다

필리핀 통역사 **돈나벨 카시퐁** & 청원경찰 **박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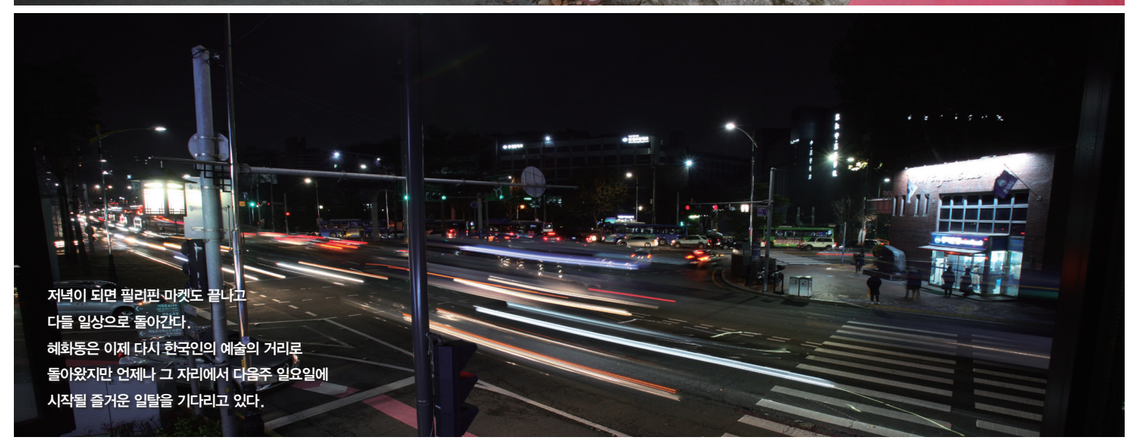
"저는 4년째 매주 일요일 이곳에서 통역을 하며 한국인 직원과 외국인 고객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 통역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필리핀과 다른 은행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있어 고향 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국에서 돈을 보내면 이틀 뒤에 출금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분이면 출금 가능한 서비스도 생겼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주민의 비율이 증가하니까 나라간 송금 방식도 발전하는 것 같아요."

"일요일에는 외국인 고객만 받는데 한국인 고객도 이해해주세요. 들어오셨다가 생소한 광경에 당황하며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웃음) 외국인 근로자 분들은 월급날이 10일인 경우가 많아 2주째가 가장 많이 붐빕니다. 저는 혜화동 일요일 근무가 이제 5개월째인데 평일 근무 때보다 좀 더 신경을 쓰는 편이죠. 대기 중에 보실 TV프로그램도 좋아하실 만한 것으로 해둡니다. 또 일을 할수록 영어공부에 강한 동기부여를 받고 있어요."

이화벽화마을에서는 나이, 성별, 국적 불문하고 60~70년대 교복을 입고 다니며 한국의 복고감성에 푹 빠진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교복 대여는 '졸리상점'에서 할 수 있는데 1시간에 5천 원이고 하루 종일 빌리는 가격은 만 원이다. 가방이며 완장, 모자 등 액세서리까지 무료로 빌려주니 추억여행을 떠나고 싶은 사람에게 강력 추천한다. 추운 날씨 카페에서 몸을 녹이고 싶다면 '이화중심'을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 2층 창문 안을 들여다 보고 있는 고양이 장식으로 유명한 이곳은 차를 주문하면 무료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와 재료를 빌려주기 때문에 벽화를 보며 받은 예술적 영감을 발휘해볼 수 있다. 보고, 즐길 거리가 많은 이화벽화마을을 방문할 때 가장 필요한 준비물은 '천천히'라는 마음가짐이다. 이화벽화마을의 진짜 매력은 거주 중인 동네주민을 배려하는 관광객의 따뜻한 마음과 마을을 눈에 담는 느린 발걸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추운 겨울,
이화벽화마을을 돌며 벽화도 구경하고
예쁜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면
꽁꽁 얼었던 마음까지
사르르 녹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주민이 살고 있는 이화벽화마을에 가면
마을어르신과 젊은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이
한데 어우러져있는 정다운 풍경을 흔하게 본다.



저녁이 되면 필리핀 마켓도 끝나고
다들 일상으로 돌아간다.
혜화동은 이제 다시 한국인의 예술의 거리로
돌아왔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서 다음주 일요일에
시작될 즐거운 일탈을 기다리고 있다.

Seunggyeongdo

이순신 장군이 사랑한 보드게임, 승경도 놀이

조선판 보드게임 '승경도 놀이'는 조선의 관직을 표로 만든 다음 승진을 하는 게임으로 이방원의 책사였던 하륜이 만든 놀이다. 조선시대 관리는 3,800명을 넘지 않았지만 등급이 많고 복잡해 양반가에서는 어릴 때부터 개념을 익히기 위해 이 놀이를 장려했다.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에도 비가 오거나 휴일이면 승경도 놀이를 즐겼다 하고 조선후기엔 인현왕후가 여자도 즐길 수 있게 팔도를 여행하는 '여행도 놀이'로 변형하기도 했으니 그 인기가 짐작이 된다. 게임진행은 자신의 신분(문과, 무과 등)을 정한 뒤, '윤목'을 굴려 '도개걸윷모'에 따라 이동하여 승진하는 방식이다. 각 지역별 룰도 있는데 충청도에서 게임을 하면 충청 감사직에 도달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던진 윤목의 숫자만큼 승진할 수 있다. 또 파직을 당하기도 하는데 낙담할 필요는 없다. 노력하면 복직도 가능하고 청백리에 오른다면 파직을 면할 수도 있다. 단, 사약을 받는다면 게임에서 탈락 되지만 말이다.

VS

Board Game

추억의 보드게임, 승리를 꿈꾸는 자 서울로 오라

'모노폴리'는 1933년 미국에서 출시한 부동산 독점 보드게임으로 한국에는 1982년 이와 유사한 '부루마블'이라는 게임이 탄생했다. 국내 최초의 보드게임으로 큰 인기를 끌어 30~40대들에게는 듣기만해도 즐거운 추억의 게임으로 남아있다. 이 게임은 보드게임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아 최근 스마트폰 게임으로도 출시돼 사랑을 받고 있다. 룰은 2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숫자의 합만큼 말을 움직여 게임 판에 쓰인 각국의 수도에 건물을 짓고 이용료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한국에서 출시한 게임답게 가장 큰 위력을 가진 땅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다. 서울의 호텔이용료는 게임이 진행 될수록 상대방을 파산에 이르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이용료가 붙기 때문에 누가 서울을 점유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집안 어딘가 잠자고 있는 부루마블이 있다면 친구들과 해보면 어떨까? 함께 즐거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말이다.

They are...

한국인 강은경과 미국인 조세린은
국악에 대한 열정으로 인연을 맺었다.
어렵고 또 어려웠던 예술의 길을 함께 걸으며
끈질긴 노력 끝에
강은경 선생은 중요무형문화재가 됐고
조세린 교수는 가야금 병창으로
하버드 박사 논문까지 쓴 교수가 됐다.
하지만, 배움의 길은 멀고
이제 조금 소리에 대해 알 것 같다는 두 사람.
외모만 다를 뿐 비슷한 경험, 같은 목표가 있어
둘은 서로에게 언니 같은 스승,
동생 같은 제자가 되어
국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나가고 있다.

우리네 인연 긴 산조처럼, 이리오너라, 소리하며 놀자~

예술의 뚝심으로 닮아가는 강은경 선생과 조세린 교수

글 **이지은** 사진 **이영균** 의상 **장영수 한복이야기, 정서미 한복디자이너**

미국 워싱턴 주에서 태어나, 세 살 때 알래스카 주노로 이주해 에스키모 원주민 학교를 다니며 외교관을 꿈꾸던 소녀와 이몽룡과 성춘향이 거닐었다는 광한루가 있는 남원 출신 소녀가 지리산 산중 암자에서 만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국악에 대한 사랑이라는 끈으로 연결된 두 사람의 인연은 신기하지만 필연적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20대, 어리고 풋풋했던 두 사람은 요즘 흰머리를 고민하고 있다. 머리가 노래서 흰머리가 잘 안보이니 걱정 말라는 강은경 선생의 위로에 웃음을 터트리고 마는 조세린 교수. 처음 만난 그때처럼 소리의 길도, 인생의 길도 함께 걷고 있는 두 사람의 추억 쌓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Who would have guessed that a Washington-state-born girl who relocated to Juneau, Alaska when she was three years old and later dreamed of being a diplomat as she attended a school for native Americans, and another girl from a completely different part of the world - from a small rural town in Korea meet at a small cottage in deep mountains in southern part of Korea? Both of them had a strong passion for Korean traditional music ever since they were young, so it is rather a destiny for them to feel attached to each other. Ms. Joselyn Clark and Gang, Eun-kyung were in their 20s when they started to be inspired by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25 years on, they have already become middle aged women and find themselves worrying about their greying hair. Ms. Gang tell Ms. Clark "There is not much to worry about since your grey hair blends well with your blonde hair. Ms. Clark bursts into laughter at her friend's joke. The two of them still have so much to talk about in sharing their artistic passion and life stories, just like the very first time they met.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 드립니다

강은경 안녕하세요. 저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이수자 강은경입니다. 현재 동국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세린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조슬린 클락크입니다. 본명보다 조세린(趙世麟)이라는 한국이름으로 불리는 게 편한데 92년, 한국국립국악원에 장학생으로 들어가면서 직접 만든 이름이에요.

두 분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 되었나요?

강은경 세린과는 지리산의 '연기암'이라는 절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외국소녀가 여행을 왔나 싶었지만 알고 보니 큰스승님 제자였어요. 당시 세린이 한국어를 잘 못해 일본에서 살다 온 저에게 세린을 가르치라고 맡기셨어요.

조세린 제가 고등학생 때 일본에서 1년간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일본어를 잘했어요. 강은경 선생님 역시 10대때 일본으로 건너가 20대 후반에 한국으로 온 거라 일본어를 잘하셨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끼리 통하는 말도 생겼죠. 제가 "오늘 사뭅겠다~."라고 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선생님은 알아들어요. 춥다라는 뜻의 사무이(さむい)랑 한국어가 섞인 말인데 "오늘 춥겠다."라는 뜻이에요. (웃음)

조세린 씨는 한국의 가야금에 빠진 이유가 있나요?

조세린 아름답고, 새롭고, 어려워서요. 일본에서 현악기인 '고토'를 배우면서 아시아 악기에 매력을 느꼈어요. 이어서 중국의 '쟁'을 배웠고 가야금은 고토와 쟁이랑 비슷하겠거니 해서 시작했는데 전혀 달랐어요. 소박하면서 아름다운 소리가 마음을 흔들었고 배우기 정말 어렵더라고요. 다룰 줄 아는 악기가 많아서 금방 연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여러 선생님들의 연주를 들으며 '나도 저렇게 연주하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생겼고 지금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가야금을 배운다 했을 때 어떠셨나요?

강은경 처음에는 취미로 좀 하다 말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나중에는 뭘 알고나 좋아한다고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지금은 세린이 소리의 맛을 속속들이 알고 있고 그것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사성어로 돼있는 곡은 우리도 어려운데 세린은 언어에도 능통하고 '홍보가'로 하버드 박사까지 땄으니 기특하고 훌륭하기 그지 없어요. 재주가 많은 인재면서 교만하지 않고 정 많은 세린을 제자를 두어 감사합니다.

가르치고 배우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요?

조세린 발음이 문제죠. 제가 선생님께 드린 편지가 참 많은데 '사랑한다.' '감사하다.' 라는 편지도 많이 보냈지만 가장 많이 쓴 건 '죄송합니다.' 편지예요. (웃음) 한국어로 강의까지 하고 있지만 매 수업마다 한국어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강은경 세린이 발음이 잘 안돼서 많이 힘들어해요. 그렇지만 덕분에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습니다. 공연에서 함께 〈사랑가〉를 부르는데 본인이 발음이 잘 안되니까 웃음보가 터져서 눈물까지 흘리며 나를 빤히 보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어쩌라고요? 말씀 하시지요." 하니 관객까지 웃음바다가 돼버렸어요. 제가 하도 발음으로 혼내 놓으니 미국 공연 갔을 때 세린도 저에게 영어 발음이 이상하다고 혼내주며 단단히 갚아서 쌍방이 되었습니다. (웃음)

해외 공연도 자주 다니시나 보네요.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나요?

조세린 알래스카 주노에 공연 갔을 때, 공연을 하는 내내 같은 호텔방을 썼는데 젊은 아가씨 둘이 한방을 써서 그런지 직원들이 저희를 연인 사이로 오해한 거에요. 일정이 마무리 될 때쯤이 마침 할로윈데이라 함께 클럽에 가보자 해서 직원에게 추천을 부탁했더니 동성애자들이 가는 클럽을 소개해 줬어요. 선생님께 말했더니 오히려 재미있어하며 제 팔짱을 끼고 저를 '허니'라고 부르며 노시더라고요. (웃음)

강은경 (웃음) 맞아~ 그때 정말 재미있었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감동 받은 공연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입양아들을 위한 순회공연을 했던 기억이 가장 마음에 남아요. 양부모님들이 아이를 위해 뿌리를 알려주려 노력하시고 사랑으로 키우는 모습이 눈에 보여 많이 찡하고 감사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에피소드가 있다면?

강은경 저는 일본에 사는 가족이 많아 10대 때 일본에서 살았고 20대의 대부분도 일본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할 일이 많았는데 일본 입국 때 한번 싸운 기억이 있네요. (웃음) 가족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한 것인데 불법취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다짜고짜 의심부터 해서 화가 났었죠.

조세린 제 이야기는 불법이라…….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예전에 관광비자로 한국에 왔는데 제가 출국해야 하는 날에 정말 보고 싶은 가야금 공연이 있는 거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공연을 보러 갔어요. 다음날 출국할 때 직원이 하루 늦었다고 하시길래 죄송하다고 날짜 계산을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벌금을 냈습니다. 비싼 공연을 본 셈이죠. 벌금에 비행기 표도 다시 예약했었으니까요. 아마 저는 기록에 '출국 날짜 어김' 이렇게 표시 돼있을지도 몰라요. (웃음) 그래도 후회 안 해요. 진짜 좋았거든요.

앞으로의 꿈과 바라는 점

강은경 국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신선한 음악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하고 싶습니다. 전통의 뿌리는 그대로 두되 시대가 변한 만큼 발전시키고 청중이 즐기기 쉽게 서양악기와 크로스오버하는 등 방식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바라는 점은 우리뿐만 아니라 사회가 '공존'이라는 출입국 사보의 이름처럼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며 어울리는 따뜻한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조세린 무대공포증 때문에 공연을 하면서 실수 하기도 했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 크든 작든, 지역이 어디든 닥치는 대로 공연을 했습니다. 그 덕에 무대에 익숙해졌고 실력도 조금 는 것 같아요. 좋은 소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앞으로의 꿈입니다. 기회가 생긴다면 '긴 산조(80분 이상의 길이)' 공연도 하고 싶고 녹음도 하고 싶습니다. 국악은 사랑 받기 충분한 음악이에요. 외국인 가야금 연주자라는 특이함이, 국악이랑 어울리지 않는 저의 외모가 한국인이 국악에 관심을 주는데 쓰인다면 좋겠네요. 무관심 속에 죽어버리면, 그 다음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다들 알았으면 해요.

추천합니다!

섬진강의
장엄함이 있는,
지리산 연기암
(Mt.Jiri, Yeongiam)

연기암은 화엄사의 원찰로서 1,500년 전 백제 성왕 때 인도의 고승 연기조사가 최초로 토굴을 짓고 가람을 세워 화엄법문을 설한 유서 깊은 사찰이다. 하지만 임진왜란 때 전소되어 가시덤불 속에서 400여년을 묻혀있다가 1989년, 원응당 종원대사가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연기암 주차장 계단을 오르면 거대한 문수보살상이 맞이해 주는데 높이 13m로 국내 최대라고 한다.

전통이 보낸 프러포즈, 우리 신랑각시하자!

전통혼례는 상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해 본다는 의미에서 국제커플에게 큰 인기가 있다. 흰 피부든 까무잡잡한 피부든 화려한 전통예복을 입고 있는 자태는 아름답고 독특한 조화를 뿜어낸다. 이처럼 전통혼례는 보기에도 아름답지만 각 절차에 숨은 의미가 더 아름답다고 하는데 공존과 함께 혼례 곳곳에 숨겨진 의미를 파헤쳐보고 외국의 결혼식 문화와도 비교해보자.

Korean traditional wedding ceremony is earning greater popularity among international couples as it allows them to experience and understand his/her Korean spouse's culture. Especially being dressed in traditional wedding costumes, regardless of skin colour, is the pinnacle of this traditional ceremony that leaves them with unforgettable memories. Aside from having this unique experience, every procedure and little detail of a traditional wedding ceremony means something. Let's now learn about these details and also compare them with other countries' wedding ceremonies.

정리 **이지은**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행복하기 위해 다 준비했다

한국은 혼인을 개인 간 결합이 아닌 집안의 만남, 지역 간의 만남으로 이해했고, 결혼식을 곧 성인이 되는 일생일대의 관문으로 여겼다. 때문에 그 절차가 길고 세심했으며 그날만큼은 평민이라도 신랑은 관복을, 신부는 공주가 입는 녹색 원삼이나 활옷을 입을 수 있었다. 혼례의 시작은 목각기러기를 올리며 기러기처럼 금슬이 좋기를 기원하는 전안례로 이루어졌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새 출발한다는 뜻으로 맑은 물에 손을 씻는 관제우로 이어졌다. 중매결혼을 했으므로 교배례를 통해 신랑신부가 예를 갖춰 첫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순서도 있었다. 현대의 혼인서약처럼 부부가 됐음을 하늘에 고하고 일생의 고락을 함께하겠다는 맹세를 한 뒤, 잔에 든 술을 나눠 마시며 혼인의 성사를 표했다.

또한 여자는 이날 머리를 올려 비녀를 꽂고 남자는 상투를 틀어 공식적으로 성인이 됐음을 인정받았다. 마지막 단계인 폐백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두 사람이 한복을 차려 입고 자손을 많이 낳으라는 뜻에서 양가 어른이 던져주는 밤, 대추를 받는 문화로 남아있다. 그 외에도 부부의 조화를 뜻하는 청실홍실, 부정을 쫓는 수탉과 번영을 상징하는 암탉, 화병에 꽂는 나무까지도 영원한 절개를 상징하는 사철나무를 써, 어느 것 하나 의미 없는 것이 없다. 현대식 결혼도 좋지만 전통혼례를 하면서 그 안에 담긴 뜻을 되짚어 보다면 결혼에 대해 절로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결혼식 때 비가 오면 잘 산대요~

한국의 결혼 속설 중에는 결혼식 때 비가 오면 잘산다는 말이 있다. 이는 비가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주고 곡식을 풍성하게 자라게 해준다는 상징적 의미에서 나온 속설이다. 또 여기에는, 흐린 날 결혼을 하는 신랑신부를 위로하기 위한 다정한 마음도 담겨있다.

신랑의 들러리, 기럭아비와 베스트맨

미국에는 '베스트맨'으로 불리는 신랑의 들러리가 있다. 베스트맨은 신랑의 남자 형제나 친한 동성친구가 맡는데 결혼식까지 결혼반지를 잘 보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통혼례에도 미국의 베스트맨처럼 신랑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기럭아비'이다.

기럭아비는 혼례 절차 중 전안례 때 쓰이는 목각기러기를 잘 보관하였다가 예식 때 전달해 주는 사람으로 베스트맨과 마찬가지로 신랑의 친인척 중 평판이 좋은 인물이나 친한 친구 중에서 덕이 많은 사람이 선정됐다. 기럭아비는 함진아비 역할을 함께 하기도 했는데 함진아비는 부부의 복을 기원하는 오방주머니와, 예물, 예단, 신랑의 사주가 적힌 사주단자 등이 담긴 함을 전달해 주는 중요한 역할로 이 역시 베스트맨과 비슷한 개념이다. 오늘 날에는 함진아비를 따로 부르지 않고 신랑이 직접 함을 들고 가는 형태로 많이 간소화 되었다.

국수, 언제 먹게 해줄래? 씨탕(喜糖), 언제 먹게 해줄래?

요즘 한국에서는 하객에게 감사의 의미로 떡이나 비누 등의 답례품을 나눠준다.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결혼식 때 씨탕(xǐtáng, 喜糖) 즉, 사탕을 답례품으로 나눠주는 전통이 있다. 오래 이어졌던 전통인 만큼 중국에서는 씨탕이 결혼의 상징이 되어 한국에서 언제 결혼 할거냐는 질문으로 "국수, 언제 먹게 해줄래?"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씨탕, 언제 먹게 해줄래?"라는 말이 쓰인다고 한다. 씨탕은 남자 쪽에서 준비를 하고 부부가 사탕처럼 달콤한 결혼생활을 하길 비는 염원이 담겨 있다. 그 외에도 중국에서는 연회장 식탁에 담배를 놓아두는데 복을 부르는 붉은 색 포장지의 고급담배로 하객들은 이 담배를 연회장 안에서 자유롭게 필수 있고 식전에 신랑이 라이터를 들고 다니며 불을 붙여주기도 한다. 이 담배는 씨탕(喜糖)과 마찬가지로 기쁠 희(喜)자를 서서 씨연(喜烟)이라고 부른다.

타국에서 겪는 법률문제, 혼자 고민하는 외국인이 없도록

To Assist Foreigners with Legal Issues in a Foreign Country

국내 체류외국인 220만. 거리를 활보하는 외국인을 보는 것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타국 생활이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다. 특히 법률문제가 생긴다면 이제는 한국인이 다 됐다고 생각하는 외국인도 당황할 것이다.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고충을 덜어주고자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엄마 밥이 그리워 향수병이 생길 수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겪는 법률문제로 골치가 아파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There are currently 2.2 million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Seeing foreigners walking down the street is no longer a surprise anymore. As such, it may seem like things have gotten a bit easier for foreign residents. However, living as a 'foreigner' in Korea still has its challenges, and it would be particularly difficult if the challenge was a legal one. When confronted with a legal issue, even foreigners who feel at home in Korea would be taken aback. In order to alleviate such difficulty, the Ministry of Justice is currently implementing the 'Village Lawyers for Foreigners' program to provide free legal counseling for foreigners. At times, foreigners may feel homesick and want to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A thorny legal issue should not be another reason for them to want to go back home.

정리 **편집실** 자료 출처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고향친구보다 더 든든한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국내 체류외국인은 2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체류외국인의 비율이 대한민국 총 인구 대비 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체류외국인들은 이혼 · 임대차계약 · 범죄피해 · 임금체불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언어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13년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소송 당사자 수는 6,389명이며, 임금체불 관련 진정 외국인 수는 12,021명, 산재피해 외국인 수는 5,674명에 달한다.

외국인이 사실상 '무변촌'에 거주하는 것과 다름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법무부,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동안 전국 모든 읍 · 면에 시행해오던 '마을변호사' 제도를 '15. 10. 5.부터 외국인에게도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57명으로 구성된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가 대다수 외국인이 거주하는 수도권 지역 중 외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된 지역(10곳)에 5~7명씩 배정되어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범 운영되다가 '17. 3. 13.부터는 국내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확대되어, 기존에 활동했던 57명과 추가로 위촉된 144명의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가 전국 15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배치되어, 외국인에 대한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The Village Lawyers for Foreigners Program: A Trustworthy Program

There are currently over 2 million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and they account for 5% of the entire population. Foreign residents encounter various legal issues pertaining to divorce, lease agreements, damages caused by crime, unpaid wages, and etc. on an everyday basis.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where foreigners are unable to fully utilize legal services due to language barrier and lack of information. According to statistics in 2013, 6,389 foreigners were part of the family litigation procedures, 12,021 foreigners filed a petition for unpaid wages, and 5,674 foreigners were affected by industrial accidents.

As such, it's a sheer reality that foreigners are unable to receive adequate legal services from lawyers. Against this backdrop, since October 5th, 2015, the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and the Korean Bar Association has expanded the program which was being implemented nationwide to include all foreigners. Out of 57 village lawyers, 5 to 7 lawyers were dispatched to each office in the metropolitan areas where there were foreign communities (10 places) to provide free legal counseling for foreigners. Since March 13th, 2017, this program has been expanded to include all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Currently, the existing 57 village lawyers and the additionally designated 144 village lawyers are providing free legal counseling for foreigners at 15 Ministry of Justice Immigration Offices nationwide.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는 체류자격, 불법체류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 중인 모든 외국인이 이용가능하며,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초기 귀화자도 이용 가능하다. 상담범위는 임대차계약, 산업재해, 범죄피해 등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모든 법률문제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와의 상담은 법무부 산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가 20개 언어로 지원하고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1345콜센터(국번 없이 1345)에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언어를 선택하고 상담원에게 상담 희망 내용과 상담 희망일 등을 전달하면, 콜센터에서 해당지역 담당 마을변호사와 연락하여 법률상담 일정을 조정하고 외국인과 마을변호사에게 상담일정을 안내한다. 그러면 정해진 상담시간에 콜센터 상담원이 외국인-콜센터-마을변호사 간 3자 통화를 연결하여 법률상담 통역을 지원하며, 외국인의 요청 등 필요 시 변호사와의 협의를 통해 대면상담 지원도 가능하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를 만나보세요

How can I utilize the program?

The 'Village Lawyers for Foreigners' program is open to all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regardless of their sojourn status or illegal stay. Newly naturalized citizens who have difficulty communicating in Korean can also utilize this program. Foreigners are able to receive legal counseling on various legal issues they encounter on a daily basis such as lease agreements, industrial accidents, damages caused by crimes, and etc. The Immigration Contact Center (1345)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supports the entire process of legal counseling by providing interpretation services in 20 different languages.

Foreigners who want to receive free legal counseling can call the Immigration Contact Center (1345 without area code), select a language, and deliver his/her issue (for counseling) and desired date to the center operator. After this is done, the operator will get in touch with the village lawyer in the region, arrange a workable schedule, and notify the date to the foreigner and village lawyer. At a set date and time, the operator will support the entire counseling process by setting up a 3-way call system among the foreigner, center, and village lawyer to provide interpretation services. In addition, upon the foreigner's request (if needed), the operator will also arrange face to face counseling via discussing with the lawyer.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이 제도의 도입 이후,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웠던 국내 체류외국인들이 임대차계약 · 범죄피해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 향후에도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일상적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법률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What support can I receive?

After the adoption of the 'Village Lawyers for Foreigners' program,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who had difficulty accessing legal services are now able to receive assistance in addressing various legal issues such as lease agreements, damages caused by crime, and etc. Going forward, the program will play a significant role in realizing legal welfare by providing free legal counseling for foreign residents in Korea.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상담사례

Village Lawyers for Foreigners: Counseling Cases

집주인의 퇴거 요청 상담

사건 개요

- 상담자는 보증금 4천만 원의 전세로 거주 중 거주한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며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문제 해결: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 이상, 계속 거주 가능함을 안내

- 집주인이 임의로 말로만 경매로 인해 집이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경우 계속 거주해도 되며, 다만 실제로 집이 경매로 진행된다면 법원에 신청 서류 제출 등 개인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

Owner Demanding Foreigner to Vacate House

Case Outline

- The foreigner put down a 40 million won deposit and leased a house. He/she lived in the house for only 6 months when the owner demanded him/her to vacate the house, stating that the house could go up for auction. Against this backdrop, the foreigner requested counseling on this matter.

Solution: The lawyer advised that he/she could continue to live in the house unless ownership of the house is transferred due to the auction.

- If the owner simply states only in words that the house could go up for auction, he/she can continue to live in the house. However, if the house does go up for auction then he/she should start preparing for the next step such as submitting required documents to court.

이혼 후 자녀양육권

사건 개요

- 국제결혼 후 부부관계 등 가정문제로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이혼 후에 친모인 자신이 자녀(4세)에 대한 양육권을 갖고자 하는데 그 방법을 문의

문제 해결: 부부관계와 양육권은 별개 문제임을 설명

- 양육권은 아이를 키우는데 더 적당한 사람에게 부여하며, 부부관계는 두 사람간의 문제로 양육권과는 별개의 사안임으로 양육권을 갖기 위해서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나 양육계획 등을 설명해야 함을 안내

Child Custody after Divorce

Case Outline

- The foreigner married a Korean national (international marriage) but currently wants a divorce due to family issues including the marital relationship. After the divorce, she wants to have custody of her child (4 years old) and so she requested legal counseling on this matter.

Solution: The lawyer explained that marital relationship and child custody are separate issues.

- Child custody is given to the parent who is more able to raise the child. Meanwhile, the marital relationship is an issue between the two people. Thus, these two issues should be dealt with separately. Therefore, the lawyer informed that if she wants to have custody of her child she needs to prove her ability to raise the child, submit the parenting plan, and etc.

답변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사건 개요

- 남편의 음주운전으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았고, 1심 항소 중 법원에 제출할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몰라 도움을 요청함

문제 해결: 국선변호사 선정 요청

- 우선 법원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만약 국선변호인 선정이 되지 않았다면 선정된 후에 작성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필요한 사항은 국선변호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안내

Writing an Answer to Appeal to Court

Case Outline

- The foreigner's husband received a fine during the first trial due to drunk driving. Thus, the foreigner (the wife) wants to write an answer to appeal to court. Against this backdrop, she requested legal counseling on this matter

Solution: The lawyer explained that she could request for a public defender

- The foreigner can ask the court for a public defender. If the public defender is not yet appointed, the foreigner can submit an answer stating that he/she would submit the final answer after the public defender is appointed. After that, the foreigner can discuss with the public defender on what steps to take going forward.

동장군도 녹이는 열정이 있다

글 **이지은** 사진 **나우연**

하늘아래 가장 편안한 땅이라는 뜻의 천안(天安), 실제로 천안은 예부터 자연재해가 적고 고려 태조가 '하늘 아래 으뜸가는 요충지'라고 명명한 데서 기원했다. 하지만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이하 천안출장소)에 발령을 받은 임철호 계장이 동료들에게 가장 먼저 들은 말은 "야……. 어떡하냐?"였다.

천안을 대표하는 민요 '천안삼거리'의 가사는 '천안 삼거리 흥~ 능수야 버들은 흥~ 제멋에 겨워서 축 늘어졌구나 흥~' 하는 구절로 시작해 여유가 느껴지고 지역을 대표하는 유명 음식도 휴.게.소.에서 사지 않으면 섭섭한 호두과자인데 그러한 천안의 상징들은 천안출장소를 다 비껴간 모양이다. 천안출장소는 2010년 10월 18일 신설됐다. 천안과 아산 내에 체류외국인 수가 급증하여 대전출입국사무소만으로는 그 많은 업무량을 다 처리해 내기가 불가능했고 민원인 역시 멀리까지 이동해야 했기에 불편함이 컸다. 때문에 천안 출장소는 개소 당시 관내 체류외국인들의 격한 환영을 받으며 첫발을 떼었다.

개소한지 7년이 된 지금, 사람으로 치면 미운 7살에 해당하는 나이지만 시작부터 녹록하지 않았던 환경 탓일까. 철(?)이 일찍 든 우리 천안출장소는 출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사무소 중 Top10 안에 들만큼 업무량이 많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민자들 그리고 고용주들에게 든든한 기관으로 우뚝 서게 됐다. 직원들의 땀방울이 없었다면 지금의 천안출장소는 없었을 것이다. 다사다난했던 출입국 공직생활을 뒤로하고 천안출장소에서 퇴임을 맞는 허창구 소장이 그동안 거쳐왔던 곳 중 천안출장소를

2017. Winter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많은 일이 있었다. 나를 형님이라 부르며 살갑게 구는 외국인도 있었고 조사 때문에 작업장을 비운 외국인을 대신해 벽돌도 날라봤다. 퇴직 후엔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궁금하다.

일이 많은 것보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지칠 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출장소의 키와 입이 되어주는 통역봉사자들에게 큰 감사를 느낀다.

유독 아픈 손가락으로 여기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업무의 과중함은 어느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다 마찬가지지만 일하는데 기운이 나게끔 2층과 4층으로 떨어져 있는 출장소를 합쳤으면 했고, 여직원 휴게실을 좀 더 쾌적하게 만들어주고 싶었고, 휴게실조차 없는 남직원을 위한 공간도 마련하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았다. 천안출장소를 두 번째로 오래 지키고 있는 김태경 반장에게 농담조로 "여기 좀 더 오래있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미안한 마음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허창구 소장이 천안출장소 식구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일 것이다.

천안 · 아산 지역의 체류외국인이 5만 명을 넘어서면서 협업센터인 아산출입국센터가 2017년 6월 20일 개소했다. 아산출입국센터에는 천안출장소 직원 한 명이 파견 나가 근무 중이며 천안출장소에는 10명의 직원이 눈코 뜰새 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는 중이다. 그렇다고 힘든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만나는데, 업무를 하면서 또 실태조사를 나가서 마주하는 그들을 보면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들에게 출입국관련 일은 '삶'과 연관돼있기 때문이다. 한번은 비자연장심사 중 핸드폰이 끊긴 외국인이 와서 도움을 요청했다. 행정상 어찌할 방법이 없었지만 손 글씨로 그분의 사정을 설명하는 내용을 써서 싸인까지 해주었다. 그 글이 통신사에서 효력이 있었을진 모르겠지만 그거라도 받아 들고 고마워하며 나가는 뒷모습이 짠할 때가 있었다. 고마움의 표시를 '돈'으로 하는 민원인도 있다. 당연히 받은 적은 없지만 그분들의 마음만큼은 돼지저금통에 밥 주듯 차곡차곡 모아두었다. 천안출장소 식구들은 업무에 지칠 때면 그 '돼지저금통'을 꺼내본다. 어제보다 묵직해진 감사의 무게에 키운이 난다.

천안출장소는 관내 천안외국인전용교도소가 있기 때문에 출소외국인 심사 및 호송 · 계호 업무도 수행한다. 월 평균 4~50명 안팎의 출소자가 있어 주말이나 명절에도 쉬지 못할 때가 많다. 이번 추석에도 출소일정이 하루 빼고 다 잡혀있어서 직원들이 순서를 정해 출근했다. 출소한 외국인은 출국조치를 당하는데 간혹 이를 인정하지 않고 협박을 하거나 천안출장소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한다. 소송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어야 해서 곤혹스러울 때가 많다. 중국에서 결혼이주한 이홍화 통역봉사자는 천안출장소의 가장 신참으로 12월 4일부터 출근했다. 천안출장소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며 인연이 닿은 그녀는 천안출장소 식구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 특히 오늘처럼 날이 궂으면 일을 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 아침부터 정신이 없다. 그녀가 민원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출입국업무를 보러 가기 전에 서류를 꼼꼼히 체크해 두 번 걸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에게 "수고하세요~" 라는 인사 한마디 건네주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어느 나라나 매년 새로운 유행어가 생겨나고, 사용된다. 그런데 요즘 한국사회는 신조어 풍년이라고 할 정도로 뜻을 모르면 이해하기 힘든 새로운 단어가 쏟아진다. 인터넷 강국답게 인터넷 용어부터 회사나 학교, 자신의 소속한 집단에서 쓰는 은어들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현대 한국 사회의 단면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각종 신조어들을 알아보자.

글 김경주

2017년 신조어 트랜드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일 없을까?

답답한 현실, 시원한 것 없을까?

고구마 (Khoai lang) vs 사이다 (Cider)

요즘 '고구마'와 '사이다'는 다른 의미로 많이 쓰인다. 먹을수록 목이 막혀오는 '고구마'의 특성을 빗대 답답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현실을 '고구마 같다'라고 표현하고, 이 답답함을 뻥 뚫어주는 사람이나 행동을 톡 쏘는 시원한 맛을 가진 사이다에 빗대 '사이다 같다'라고 말한다. 음식의 특성을 사람과 상황에 딱 맞게 비유한 신조어다.

Gần đây, từ 'khoai lang' và từ 'Cider' đang được sử dụng nhiều với ý nghĩa khác với ý nghĩa vốn có của chúng. Khoai lang có đặc điểm càng ăn thì càng nghẹn nên người Hàn Quốc thường sử dụng cách diễn đạt 'giống khoai lang' để chỉ những người không biết tùy cơ ứng biến hoặc những hiện thực ngột ngạt, nghẹt thở. Còn những người hoặc hành động giúp giải tỏa sự ngột ngạt đó được diễn đạt là 'giống Cider' vì Cider mát lạnh và tạo nên sự sảng khoái nhanh chóng cho người uống. Đây là những từ mới dùng để ví người và hoàn cảnh có đặc điểm giống thức ăn.

Dialogue

민수는 왜 이렇게 고구마 같니?

Tại sao Min Su lại giống 'khoai lang' như thế này?

에휴~ 네가 사이다처럼 한마디 해줘.

Thế thì cậu nói vài lời giống 'Cider' đi?

• 사이다는 한국에서 유명한 탄산음료들 중 하나입니다.

• Cider là tên của một loại nước uống có ga nổi tiếng ở Hàn Quốc

취업준비생의 비애

티슈인턴 (纸巾实习生) vs 부장인턴 (部长实习生)

대한민국은 건국이래 최대의 취업난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턴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인턴에서 정직원이 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턴직인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아 티슈처럼 쓰고 버려지는 인턴을 '티슈인턴'이라 칭하고, 정규직이 안돼서 인턴 생활만 반복하다 보니 부장직급만큼 풍부한 경험을 쌓은 인턴을 '부장인턴'이라 부른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说大韩民国正在经历建国以来最严重的就业难也毫不夸张。虽然实习制度很活性化，但从实习生成为正职员简直就是天上摘星星。因为这种情况持续，将那些本以为会转换成正职员，但和纸巾一样被人用了后就丢弃的实习生称之为“纸巾实习生（Tissue intern）”。还有，因为没有转换成正职员，不断反复实习生生活，累积的经验相当于部长职位的实习生称之为“部长实习生”。这不能不是令人心痛的现实。

Dialogue

인턴기간이 끝나가는데, 정식 계약하자는 얘기가 없어. 난 티슈인턴이었나 봐.

实习期快到期了，但公司没有提起要转为正职员，原来我也是个纸巾实习生（Tissue intern）啊。

난 인턴만 몇 번째인지 몰라. 부장인턴급이지 뭐.

我都不知道这是第几年的实习啊，我也不过是个部长实习生而已。

회사원의 꿈과 현실은 다르다

월급루팡 (Salary Lupin) vs 월급 로그아웃 (Salary Logout)

가까스로 취업을 해도 일하랴, 상사 눈치보랴 여전히 바쁜 삶이 계속된다.

고단한 회사생활 속 단비는 단연, 월급날이다. 성실하게 일하며 돈을 버는것이 당연하지만 가끔 그런 생각해본 적 있을 것이다. 회사에서 일을 안 하고 월급만 받는 상상 말이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긴 하다. 이 경우를 월급을 훔쳐간다는 뜻에서 추리소설의 유명 도둑 '괴도 루팡'과 합성해 '월급루팡'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회사원들은 월급이 들어와도 월세와 각종 공과금, 카드비가 빠져나가면 통장 잔고는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적다. 이때 들어왔던 월급이 나간다는 의미로 로그아웃을 붙여 '월급 로그아웃'이라 부르며 현실을 한탄하곤 한다.

Even at a time of high youth unemployment, landing a decent job does not mean a "problem solved, case closed" situation. Long work hours, managing good relations with colleagues are what await. The best compensation for all these stress is, without doubt, monthly salary! But what seems much more fabulous is earning salary without doing anything at work! Although this sounds completely unrealistic, this is a fantasy what most of employees have, and out of such hope, "salary lupin" was coined. Lupin is a character which appears in a famous Japanese novel series as a mischievous thief who like freebees. Earning an idea from Lupin's characteristics and adding the word "salary" to "Lupin" to create "salary lupin", this newly coined word is used to describe a person who "steals" money from the company – meaning a lucky employee who gets a free pass for a day of hard work. However, the reality is that, not to mention being a "salary lupin", dubious salary deductions make many employees upset on their payday. So many pretax deductions leaves them with much less salary than they expect, and factoring in fixed costs, such as monthly rent, credit card payment, the salary that they get is much, much less compared to their gross salary. To describe this gloomy situation, the word "log(ged) out" was combined with "salary" to coin "salary log(ged) out".

Dialogue

오늘 일이 많이 없어서 월급루팡된 기분인걸?

There was not much work to take care of today. I was a total "salary lupine"!

좋겠다~ 난 오늘 월급 로그아웃돼서

You are lucky today. I had my "salary logged out" today.

한반도를 사랑한 남자
라파엘(Raphael)씨 이야기

영천의 밤하늘에 묻어둔 꿈 하나

지난 2010년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이 나란히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경사를 맞았다. 라파엘 씨가 한국과 첫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이 덕분이었다. 당시 브라질 유네스코에서 일하고 있던 그는 행사에 참여한 한국인과 친분을 쌓았고 사학자 故이기백 교수가 쓴 한국사에 관한 책을 읽으며 한국에 대해 호기심을 가졌다. 그렇게 한국에 온지 3년째, 지금은 중앙대학교대학원에서 북한개발협력 과정을 밟으며 석사를 준비하고 있다. 역사와 전통이 아름다운 나라라 생각했기에 그는 바쁜 와중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최한 '또바기팜족(순 우리말 '언제나'와 'Farm'의 합성어)' 농촌여행 서포터즈로 활동했다.

활동을 하며 처음 김장도 해봤는데 '내 손맛'이 더해지면서 깊은 맛이 들었고 '라파엘표 김치'는 한동안 그의 식탁의 가운데 자리를 지키며 메인 요리 대접을 받았다. 가장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서울의 하늘과는 전혀 달랐던 영천의 밤하늘이었다. 여전히 많은 브라질 사람들에게 한국은 북한문제로 인해 안전이 염려되는 나라다. 그가 영천에서 찍은 사진은 고향 친구들에게 한국이 전쟁의 기류가 아닌 아름다운 은하수가 흐르는 나라라는 걸 알게 해줬고 한국인 친구들에게도 농촌의 새로운 매력을 알게 해줬다. 훗날 UN에서 일하고 싶은 그는 그 꿈의 실현을 위해 미국으로 가야 한다. 그전에 한국에 머무는 동안 북한에 변화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남한친구들과 함께 서울에서 열차를 타고 북한 농촌도 체험해본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이다.

나눔은 즐거움이다
쏘냐 글래져(Sonja Glaser)씨 이야기

민화 봉사, 더 큰 세상을 그리다

한국에서 온 '나이팅게일'에게 마음을 빼앗긴 독일청년이 있었다. 둘은 결혼했고 그 사랑의 결실로 쏘냐 씨가 태어났다. 쏘냐 씨는 한국계 독일인으로 14년 전 처음 한국에 오게 됐다. 외모가 달랐어도 독일 사회는 독일에서 태어난 그녀의 정체성에 의문을 갖지 않았다. 스스로도 자랑스러운 독일인이라 여기며 살았지만 16살, 프랑스 유학생활 중 동양적인 외모로 국적이 어디냐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면서 한국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선택한 한국생활은 쉽지 않았다. 일만하기에도 바빴고 무엇보다 외로웠다. 그래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모임 '히피코리아'를 만들게 됐다. 다양한 프로그램 중 가장 독특하고 의미 있는 것은 양로원에서 하는 민화 봉사이다. 첫 봉사를 나간 뒤 다시 방문하고 싶어 방법을 연구하던 차에 텔레파시라도 통한 듯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그 외국인들이 또 왔으면 좋겠다고 먼저 연락을 해왔고 만남은 지금까지 3년간 이어지고 있다. 의사소통은 밝은 표정과 눈빛으로 충분하고 전직 스파이로 의심될 정도로 외국어에 능통한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이 계셔서 문제 없다. 봉사가 끝나면 안아주는 시간이 있는데 처음 몇 달간은 아주 어색해 하셨지만 지금은 쪼르르 줄 서서 체온 나누기를 즐기신다.

바람이 있다면 한국이 경계 없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는 것이다. 다문화, 외국인, 노인, 전통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소외됐었다. 이들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지난 2011년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처음 열렸던 정부합동고충상담 한마음걷기축제가 올해로 7회째를 맞이했다. 행운을 상징하는 7번째 행사였던 만큼 참가자의 얼굴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미소가 만발해있었는데, 단풍도 질투할 만큼 모두가 아름답게 어울리던 걷기축제,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자.

글 **이지은** 사진 **나우연**

제7회 한마음걷기축제

단풍도 질투했던 세계인의 한마음걷기축제 현장 속으로

가을의 낭만이 절정으로 다다르던 10월의 마지막 일요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제7회 한마음걷기축제가 열렸다. 조금은 쌀쌀한 일요일 아침, 포근한 이불 속 늦잠의 유혹을 물리친 참가자들이 참가번호표를 받기 위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남녀노소로 다양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그리고 내국인까지 국적을 넘나든다. 이런 북적북적하고 즐거운 광경을 보고 월드컵공원 산책을 나온 사람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아쉽게도 걷기대회 일주일 전부터 신청이 꽉 차 마감이 돼서 현장 참여는 할 수 없었다. 참가번호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 주변에 설치 되어있는 아시아문화 체험존과 '사회통합기초질서지키기'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다음 걷기축제참가를 기약했다.

따뜻한 커피 한잔에 담긴 마음

걷기대회 시작 전 상암월드컵경기장 평화광장에 마련된 행사장 코너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던 곳은 '서울출입국 사회통합협의회'에서 운영한 한마음 소통카페였다. 걷기대회 참가자들의 빈속을 달래주고 차가워진 손을 녹여줄 커피와 마들렌 쿠키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었기 때문이다.'서울출입국 사회통합협의회'는 오늘만큼은 일류 바리스타가 되어 쉴 틈 없이 커피를 내리고 쿠키를 나누어 주었다. 정신 없이 바빠 보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친절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참가자와 일일이 눈을 맞추며 맛있게 드시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아마 참가자들은 커피와 쿠키를 받기도 전에 그 따뜻한 눈맞춤에서 마음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Mini Interview

"재한외국인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서울출입국
사회통합협의회
임기주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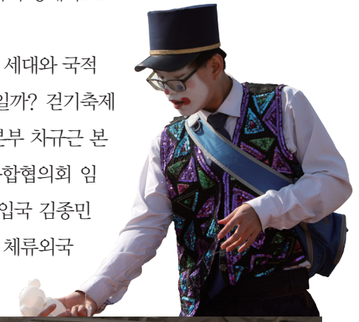
서울출입국 사회통합협의회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위촉된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으로 의료, 법률, 교육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돼있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멘토 역할을 하며 이민자의 재능을 발굴하고 자립도 돕고 있지요. 올해에는 이민자 가정을 위한 지원기금 마련, 멘토링 캠프, 무료 건강검진 지원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고 다문화 자녀의 교육을 위해 '책꾸러미' 사업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운영하는 한마음 소통카페의 이름처럼 내·외국인이 소통하는 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참가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한마음 소통카페뿐만이 아니었다.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고충상담부스를 운영하여 외국인이 한국사회에서 겪고 있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상담을 진행했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간호사협회, 서울시한의사회, 마포구 약사회, 인하대병원 등 의료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건강진료상담까지 진행했다.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을 위해 영어, 중국어를 포함, 8개 언어의 통역이 가능하도록 18명의 든든한 통역요원도 배치됐다. 또 원활한 행사 진행과 안전을 위해 100여 명의 진행요원과 봉사자가 행사장 곳곳에서 참가자의 다양한 요구를 처리해 주었으며 참가자 전원의 안전을 위해 단체보험에도 가입하고 응급차량과 응급요원도 배치해두는 등 행사 전반에 걸쳐 철저한 준비를 했다. 꼼꼼한 준비와 배려 덕분인지 걷기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자가 늘고 있고 많은 사랑을 받는 중이다.

즐거운 공연으로 열기 충전!

걷기축제의 사회자는 김현욱 아나운서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회를 맡았다. 김현욱 아나운서는 사회를 보면서 작년보다 올해 행사는 특히나 영광스럽다며 말문을 열었다. 올해 결혼을 한 김현욱 아나운서 역시 다문화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결혼 전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김종민 서울출입국사무소장께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기도 해, 개회식의 분위기가 한층 밝고 훈훈해졌다. 오프닝공연은 타악퍼포먼스팀 한울소리의 경쾌하고도 멋있는 전통 타악공연으로 시작됐다.

전통의 기본에 충실하면서 현대적 해석이 섞인 공연은 세대와 국적을 불문하고 빠져들기 충분했다. 그 기운을 받아서 일까? 걷기축제 행사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차규근 본부장, 前영국대사관 추규호 대사, 서울출입국 사회통합협의회 임기주 회장, 건강사회운동본부 이수구 이사장, 서울출입국 김종민 사무소장의 인사가 더욱 힘차게 느껴졌다. 특히, 국내 체류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어선 만큼 재한외국인의 실질적 권익 증진에 힘쓸 것이며 내·외국인의 화합을 위해 오늘 걷기축제가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는 차규근 본부장의 인사말에서 글로벌 다문화 시대의 중심에 있는 대한민국의 포부가 느껴졌다.



3.8km만큼 가까워 지는 우리 사이

오전 10시, 드디어 걷기축제 출발선에서 출발신호를 기다리던 참가자들이 출발을 했다. 경쟁을 하는 시합이 아니기 때문에 출발 신호가 났어도 다른 사람을 앞지르며 서두르는 참가자는 없었다. 다들 어깨를 나란히 하고 혹은 손에 손을 맞잡고 재잘재잘 수다를 떨며 출발선을 넘어섰다. 걷기축제는 걷기노선 각 포인트마다 부착되어있는 QR코드를 찍고 주어지는 미션을 수행하면 완보증을 받을 수 있다. 미션의 내용은 내·외국인의 어울림을 독려하거나 외국인이 한국사회에 살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기초질서에 대한 질문을 푸는 미션이 주를 이뤘다.

덕분에 참가자들은 재미 속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화합하고 기초질서 상식까지 알 수 있었다. 다양한 미션 중 가장 왁자지껄했던 미션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3명이상 모여 단체사진을 찍는 미션이었다. 한국인끼리, 외국인끼리 참가했던 무리들은 미션을 완료하기 위해 한데 뭉쳐 사진을 찍었고 그 중에선 3.8km 거리를 함께 걸으며 우정을 쌓는 사람들도 있었다. 참가자 모두가 3.8km만큼 가까워 지는 시간이됐다.

상암에서 떠나는 세계여행

걷기를 다 마쳤다고 해서 행사가 끝난 것이 아니었다. 걷기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이 참가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상암에서 떠나는 세계여행이다. 다양한 아시아 국가의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아시아문화 체험존이 설치되어있었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여권 없이도 즉석에서 해외에 놀러 간 것 같은 기분을 낼 수 있었다. 일본, 베트남 등 여러 아시아 국가의 전통의상을 입고서 그 나라 전통놀이체험까지 해보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즐거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게다가 실제 그 나라 사람이 요리한 전통음식까지 맛 볼 수 있으니 참가자들에게 진짜 해외여행 못지않은 경험을 선사해 주었을 것이다.

Mini Interview

"오늘 걷기축제? 일석삼조예요!"

정부합동
고충상담
베트남 통역사
뉴연홍번 씨와
아들 최재현 군

저는 이번에 베트남어 통역을 도와주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올해로 6번째 참여하는 건데 해가 갈수록 외국인 참가자가 많아져서 뿌듯해요. 재현이는 이번에 처음 함께 했는데 다른 나라 전통놀이체험을 가장 재미있어했고 경품에 당첨돼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마침 세탁기가 고장 났었는데 세탁기 당첨이라니 아직도 얼떨떨하네요.
다음 축제도 가족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봉사활동도 하고 좋은 추억 쌓을 거에요~.

생의 끝자락에 선 이들에게 희망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국을 떠났고,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까지 날아온 난민들. 출입국 · 외국인지원센터는 이들을 맞이하고 보듬는 일을 하고 있다. 생의 끝자락까지 몰린 난민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국민들과 진정한 정을 나누며 공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 곳의 온기를 전한다.

글 **김경주** 사진 **나우연**

도움은 받은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2016년 유엔난민기구 글로벌 리포트에 따르면 실향민을 포함한 세계 난민은 약 6,500만 명. 우리가 먹고 마시고 웃는 이 순간, 세계 곳곳의 난민들은 생사의 기로에서 아슬아슬하게 생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적 이유 혹은 종교, 인종, 국적 등으로 인한 다양한 갈등과 문제로 고국을 떠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떠도는 가여운 이들이다. 우리나라는 난민과 크게 관련 없어 보이지만 아시아 나라 중 처음으로 2013년 독자적 난민법을 시행해 난민들을 받고 있어 난민신청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난민법과 더불어 한류 열풍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대한민국은 난민에게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난민신청자와 재정착난민들의 사회적응을 위해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는 2013년 11월 인천 영종도에 출입국 · 외국인지원센터(이하 센터)를 마련했다. 난민에 대한 이해 부족과 여러 문제가 결부되어 지역 주민들의 센터 설립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본부와 유엔난민기구(UNHCR)의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으로 무사히 정식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다. 현재 센터에는 제3기 재정착난민 가족들과 일반 난민신청자들 60여 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숙식은 물론 의료 서비스와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을 제공받으며 한국에서 살아갈 준비를 하도록 배려한다.

센터는 열악한 난민캠프에서 힘겹게 살아 온 이들이 잠시나마 몸과 마음을 기댈 수 있는 공간이자 한국이란 미지의 사회에 나가기 위한 기초체력을 쌓을 수 있는 마지막 베이스캠프가 되어주는 셈이다. 때문에 센터의 주된 업무는 꿈을 안고 머나먼 이국 땅에서 살아가야 할 난민들을 위해 베푸는 일이다. 김태수 센터장은 역시 어렵게 한국으로 온 사람들을 돕는, 귀한 일을 하는 직원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나누는 기쁨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며 평소 자주 당부한다고 했다. "난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필요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난민 신분으로 외국에서 보호받았던 것 알고 계신가요? 일제강점기 시절 김구 선생님, 안중근 의사, 이승만 前대통령 등 독립운동을 이끈 많은 분들도 난민신분이셨어요. 도움을 받았던 만큼 우리나라도 세계 난민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난민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여성 최초 미국 국무장관이 된 매들린 올브라이트 같은 훌륭한 인재가 우리나라에 나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베품이 일상이 된 12명의 직원

센터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아픈 곳은 없는지, 한국어 교육은 잘 받고 있는지,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일은 온전히 12명의 센터 직원들의 몫이다. 교육지원팀 조태홍 계장은 센터로 막 부임했을 때 이전과 다른 업무에 조금은 당황했다고 기억했다. "처음 해보는 일이 힘들었지만 베테랑 팀장님들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팀장님들이 없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한 걸요? (웃음)" 센터 업무는 단순히 보호와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난민가족의 아이들 교육문제, 재정착난민을 위한 심리 치료프로그램과 취업 알선, 거주지 마련 등 직원들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을 정도라 신경 쓸 부분이 많은 탓이다.

그러나 그녀가 1년 넘게 이 곳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동료간의 끈끈함과 일을 할수록 커져가는 난민들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김기협 교육팀장 역시 같은 마음이었다. "저도 센터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 채 발령받았는데요, 지금은 센터 업무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베품을 실천하면서 제가 더 얻는 것이 많게 느껴지거든요. 센터 인원이 적어 힘든 점도 있지만 즐겁게 일하려고 합니다."라며 푸근한 옆집 아저씨 같은 웃음을 보여주었다. 센터 직원들은 나누고 베풀어야 하는 센터 업무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었다.

국적이 무슨 소용이랴, 진심은 통한다

센터는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행정동, 강의실과 도서관 및 식당이 있는 교육관, 입주난민들이 머무는 생활관 이렇게 3개 건물로 나뉘어 있다. 운동장과 여가시설,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까지 마련되어 있어 작은 마을과 다름없었다. 시설적인 복지뿐만 아니라 경인교육대학교와의 MOU를 통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난민 아이들이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했고, 마음에 상처가 많은 난민들을 위한 심리치료 수업도 마련하였다. 지난 11월 22일에는 영종도 새마을 부녀회와 '재정착난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행사를 진행했다. 지역사회 주민들과 교류 활동을 만들어 난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만든 김치는 센터와 가까운 마을 어르신들과 노인정에 전달됐다. 이렇게 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조태홍 교육계장은 난민들에겐 한국어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플 땐 병원에 가야하고 문제가 생기면 알려야 하니까 한국어 교육은 되도록이면 빠지지 말라고 당부해요. 갓난 아이를 안고 수업에 참여하는 엄마들도 있죠. 특히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 한국행을 선택한 거라 한국어를 배우려는 의지가 강해요. 잘 배우기도 하고요." 그녀의 말처럼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는 난민학생들의 눈빛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반짝거렸다.

모든 직원들의 바람은 난민들이 앞으로 한국에서 잘 살아가는 것, 단 하나다. 직원들의 이런 마음이 닿은 걸까. 작년 스승의 날엔 난민들이 직접 만든 카네이션과 서툰 한글로 쓴 편지가 직원들에게 전해졌다고 한다. 난민들 역시 진심으로 자신들을 대하는 직원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진심과 진심은 통하는 법. 아낌없이 베푸는 센터 직원들과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한국을 배우는 난민들이 있기에 인천 앞바다의 매서운 바람에도 출입국 · 외국인지원센터는 희망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난민학생들의 한국어 실력과 밝아지는 표정을 보며 교육담당자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모두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

김기협 교육팀장

"잔잔한 호수 위 오리가 부지런히 발을 움직이듯 출입국 최정예 직원들이 멀티플레이어처럼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와 교육행정에 관심 있는 직원들이 있다면 대환영이죠~. 따듯한 마음이 생기는 이곳에서 함께 하고 싶은 직원들은 센터로 연락주세요!"

조태홍 교육계장

"적은 인원으로 입주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 안쓰럽기도 하지만 입주난민들의 '고맙다'는 한마디, 웃는 얼굴을 보면 뿌듯합니다. 직원들이 일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지원팀도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출입국 · 외국인지원센터 파이팅!"

유연상 운영지원팀장

"센터에서 3년째 통역사로 일하고 있어요. 17년 전 한국인 남편을 만나 한국으로 왔죠. 피가 섞인 사람들을 만나고,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을 한국인들도 편견 없이 바라봐주면 좋겠습니다."

김파우(미얀마 카렌족 결혼이민자, 한국어 통역사)

인구절벽에 서서 이민정책을 고민하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Boston Consulting Group)은 "글로벌 노동력 위기(The Global Workforce Crisis, 2014)"라는 보고서에서 전 세계는 심각한 노동 불균형과 더불어 2030년부터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고하였다. 한국은 그 중에 서있다. 노동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민자 유입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것 또한 만만치 않은 숙제를 갖고 있다. 수반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고민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글 **강동관**(IOM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연구교육실장)

저출산 고령화, 즉 인구절벽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다. 대내적으로는 우선 노동력이 부족하면 노동임금이 상승한다. 임금 상승은 상품가격의 상승, 경쟁력 하락, 판매부진, 기업이익의 감소로 나타난다. 이는 결국 기업규모의 축소와 고용감소로 이어진다. 대외 부분에서는 국내재화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재정수지 또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고령화의 진전은 상대적으로 노동인구를 감소시켜 전체 세원이 줄어드는 반면 연금, 사회보장, 건강보험지출 등의 증가로 재정수지를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재정수지 악화는 경기 부양책으로 사용되어왔던 사회기반투자를 어렵게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 참가자에게 보다 높은 과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소비와 투자(저축)를 감소시켜 기업의 생산 활동을 둔화시킨다. World Economic Outlook(2005)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고령인구가 1% 증가할 때 실질 1인당 GDP성장률은 약 0.041%p 감소하고 재정수지는 0.46%p 감소한다고 한다.

국회예산처가 전망한 투입요소별 잠재성장률 기여도를 살펴보면 노동투입의 기여도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6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될 예정이다. 2060년에는 기여도가 -0.87%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령화로 저축률이 하락하면서 자본의 성장 기여도 역시 2040년 이후 1%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인구절벽을 타개하고 노동력을 확보할 정책적 대안은 불행하게도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출산율을 높이면 된다지만 한 번 내려간 출산율은 그리 쉽게 복원되지 않기 때문이다.

IOM이민정책연구원
IOM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IOM • OIM IOM • MRTC

국제이주기구(IOM)와 대한민국 정부간 국제협정에 의해 2009년 12월에 설립된 비영리 연구 · 교육 기관으로 지역사회와 정부, 나아가 아시아 지역 및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민, 다문화 정책에 특화된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와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내 · 외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노동력 추가 공급이 가능한가?

우선 국내에서 공급 가능한 노동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7년 4월 기준으로 15세 이상의 인구는 4369.7만 명이며 이는 경제활동인구 2775.1만 명과 비경제활동인구 1594.7만 명으로 나눠진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되는데 각각 2657.7만 명과 117.4만 명이다. 즉 활용 가능한 노동력으로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가 존재한다. 이외에도 취업자 정의에 감춰진 사실상의 가용한 노동력이 존재한다. 취업자에는 조사 대상기간(1주)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요한 최대 유입 노동력은 유휴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하고도 부족한 노동력으로 보아야 한다. 이를 고려한 다음, 저출산 · 고령화와 잠재성장률을 기반으로 이민자 도입규모가 추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인구감소 부분만큼 노동유입이 필요하다면 새삼스레 논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민자의 적정 유입량은 잠재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동량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한 내국인의 임금과 고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투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 외국인근로자에 의해 내국인 근로자의 노동기회가 박탈당하고(노동대체효과) 임금이 감소할 것이라는 견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누가 유입의 우선순위인가?

노동력감소를 보충하기 위하여 얼마만큼, 누구를, 왜 도입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전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사항들이 있다.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민자가 유입된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이 그것이다. 이민자 도입으로 인한 생산, 소비, 세수 증대 등이 편익의 동전의 앞면이라면 이민자를 관리하고 사회통합에 드는 비용은 동전의 뒷면과 같다.

외국인과의 교류를 통한 외국 문화와 상식의 확대, 해외 인적 연결망 구축을 통한 민간 외교 확대, 인력이 부족한 산업부분과 내국인이 취업하기 싫어하는 업종 혹은 전략업종에 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생산활동과 고용 촉진 및 소비지출 확대 등은 사회적 편익의 예로 들 수 있다. 반면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으로는 외모나 행동, 생활습관 등의 차이로 인한 불편함이나 불쾌감, 의사소통 문제와 문화 · 종교 · 정서적 차이로 인한 주거지역 및 사업장 내에서의 갈등, 범죄나 탈법행위의 증가로 인한 범죄비용은 물론 관리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치안이나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비용, 외국인 증가로 인해 주거 공간, 공공 · 의료 · 교육시설 등에서의 혼잡비용 등이 있다. 또한 저임금 외국인들의 국내 취업 확대에 따라 저임금에 의존적인 한계산업의 산업구조조정이 지연될 수 있고, 이민자들이 장기 혹은 정주화가 된 이후에는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성과 이를 대처하기 위한 복지비용과 재정부담 등도 있다.

따라서 총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이민자 도입에 있어 누구를 도입 우선순위에 놓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중요하다.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분배의 정의는?

Bodvarsson and Berg(『The Economics of Immigration: Theory and Policy』, 2009, Springer)에 의하면 10%의 이민자 증가로 인한 미국 내 노동자의 손실은 GDP의 1.9%, 자본가들의 이익은 GDP의 2.0%, 경제적 순이익은 0.1% 수준이다. 이 결과는 이민자 유입으로 인해 이민자와 보완적 관계에 있는 노동자와 자본가는 이익(편익)을 얻고, 외국인 근로자와 경쟁 대상이었던 내국인 근로자는 손실(비용)이 발생하였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민자의 유입으로 편익 수혜자와 비용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있어 분배의 정의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이민자와 보완적 관계에 있는 노동자 및 자본을 소유한 자본가는 이민자의 유입에 대해 아무런 기여 없이 혜택을 향유하는 것(무임승차)이어서 이것은 불공정한 것이며,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손익의 분배에 있어 이러한 불공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고용부담금제도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대상은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이다. 고용부담금제도를 전체기업에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준비기간 및 단계적 도입기간을 설정한 후 순차적으로 고용부담금의 비율을 높여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단, 뿌리산업 기업과 지방 소재지 기업의 경우와 수도권지역이라 할지라도 노동 부족률이 일정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고용부담금을 면제하거나 낮은 요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정한 사업장 규모 이하인 경우, 예를 들면 5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고용부담금을 면제하거나 낮은 요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K.I.S. CALENDAR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화제의 NEWS

차규근 신임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 취임

법무부는 '17. 9. 4.부로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 변호사를 임명하였다. 신임 차규근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은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체류외국인의 인권 보호에 앞장 서왔다. 현재 2백만 명의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고 연간 8천만 명이 대한민국을 출입국하는 글로벌한 환경 속에서 신임 차규근 본부장은 출입국관리와 외국인 정책을 선도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와 출입국서비스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창 동계올림픽 관광객 유치 및 선수단 편의증진을 위한 출입국서비스 방안 발표

법무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지원의 주요 내용은 ▲대회 참가자들에게 더 나은 출입국 편의 제공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올림픽 활성화 분위기 조성 ▲올림픽 기간 중 방한 관광객에게 편의 제공 ▲안전한 올림픽 개최 지원 등이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은 "올림픽 전 · 후 출입국심사 강화 및 출입국안전대책반을 설치 · 운영하여 불법체류자 양산 가능성과 테러 위험인물 입국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안전한 대회, 성공적인 평창 올림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후손 25명, 광복절 맞아 대한민국 국적 취득

법무부는 '17. 8. 11.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그동안 외국 국적으로 살아오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 25명을 대상으로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독립 유공자 남자현 선생, 김규면 선생, 이승준 선생 등의 후손 25명이 국적증서를 받았다. 이번 수여식은 제72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겨보고,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드높은 애국정신에 보답하고자 그 후손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그간의 삶을 위로하고 밝고 희망찬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수여식에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독립유공자 등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적인 노력의 산물이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우리 국적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 정책현장 방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은 '17. 9. 28. 국내 대표적인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인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2동을 방문하여 동포관련 민관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국민과 동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대림2동은 최근 영화 등 일부 매체에서 중국 동포로 인한 우범지역인 것처럼 묘사된 바 있다. 차규근 본부장은 이날 정책현장 방문 자리에서 "법무부는 국민과 동포를 비롯한 재한 외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정책홍보 등을 통해 동포밀집지역이 더 이상 무질서하고 우범지역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차규근 본부장은 '17. 10. 18. 섬유산업 부문 업체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고 외국인 근로자 활용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경기북부 지역을 방문하여 외국인 근로자들,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차규근 본부장은 이날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없는지 세심한 출입국행정을 펴나가겠으며, 중소기업과 내국인 · 외국인 근로자 모두를 아우르는 외국인정책을 구현하고 국가적으로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차규근 본부장은 '17. 11. 14. 서울시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기술창업자, 유학생 무역창업자 등 국내 스타트업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창업과 관련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으며, 간담회 이후 「2017 외국인 발명 · 창업대전」에 전시된 20여 개 작품을 돌아보며 참가 외국인들을 격려하였다.

국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외국인의 귀화 시 기존의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는 내용의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7. 8. 21.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통상 귀화허가 신청자는 귀화 필기시험을 거치게 되어있으나, 귀화 필기시험은 단순한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으로서의 소양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여 기본소양 평가를 체계화하고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더욱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귀화허가 신청 후 1년 이내에 언제든 본인이 원할 때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본인의 실력에 따라 신속히 귀화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며,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는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8. 3. 1.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우리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 외국인의 소양을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신속한 귀화허가 심사를 통해 신청자의 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얀마 재정착난민 5가족 한국 입국

법무부는 '17. 7. 25. 인천공항에서 아따피 가족 등 제3기 미얀마 재정착난민 5가족(30명)을 위한 입국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입국한 재정착난민들은 태국 난민캠프에서 생활하던 사람들로, '17. 3월부터 5개월간 심사를 거쳐 선발되었으며 출입국 · 외국인지원센터에서 6개월간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등 기초 적응교육을 받은 후,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게 된다. 전 세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보호와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우리나라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재정착난민을 받아들임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격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3년간의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인권과 국익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중장기 재정착난민 수용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출입국심사시스템 '국제정보화상 대상' 수상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와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을 활용한 법무부의 출입국심사 시스템이 '17. 9. 10. ~ 13. 타이완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세계정보기술서비스연맹(WITSA) 정보기술(IT) 총회에서 '2017년도 국제정보화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국제정보화상은 세계 80개국 정보통신기술 단체들이 가입한 국제민간기구인 세계정보기술서비스연맹에서 매년 정보통신기술을 가장 잘 도입하여 활용하는 기업 및 기관을 심사, 선정하여 시상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세계정보기술서비스연맹 정보화상은 전 세계 15개국에서 42개 기관이 응모하여 경쟁하였으며, 법무부가 제출한 출입국심사 시스템이 최고의 상인 대상을 받게 되었다.

투자이민펀드 활용, 스마트공장에 1,000억 원 지원

법무부와 산업은행은 '17년 1월 「투자이민펀드를 활용한 스마트공장 우대 금융대출」 상품을 출시하여 올해 11월 기준, 75개 업체에 총 1,000억 원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확대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동참하고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13년 5월부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시행하여 '17년 11월 기준 1,057억 원의 외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 법무부와 산업은행은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내 중소기업 육성에 도움이 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 전국 확대 시행

법무부는 '18. 1월부터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를 전국 34개 모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포함)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제한 조치 등을 연계하여 체납된 세금을 자진납부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16. 5월부터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안산 · 시흥지역에서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후 '17. 5월부터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포함)에서 국세, 지방세, 관세 등으로 확대하여 시행한 결과, '17. 9월말 기준 92억 원의 외국인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법무부는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하여 금년 말까지 관계부처 간 실시간 체납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주요 정책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라면서, "향후 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부정수급 등까지 확대하여 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립은 물론 조세정의 실현과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4세대 동포 한시적 구제조치 시행

법무부는 4세대 고려인 동포 등이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하여 국내체류 중인 부모와 헤어지는 아픔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17. 9. 13.~'19. 6. 30.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방문동거자격'을 부여하는 인도적 조치를 마련, 시행하기로 하였다. 4세대 동포들은 그간 성년이 되면 일정 기간만 부모와 체류할 수 있었고, 이후에는 단기방문 비자를 받아 본국과 대한민국을 오고 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법무부는 이들 동포가 국내체류 중인 부모와 생이별하는 아픔을 최소화하고 학업 등의 중단이 없도록 인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방문동거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이번 한시적 구제조치에 따라 금년 내에 출국해야 하는 4세대 동포 179명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합동단속으로 불법체류외국인 1만 3천여 명 적발

법무부는 2017년 상 · 하반기 각 1회씩 총 21주간에 걸쳐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시행하여 불법체류외국인 13,255명과 불법고용주 2,549명을 적발하였다. 2017년도는 국민의 일자리 침해 분야에 대해 단속역량을 집중하였으며 특히, 서민의 대표적인 일자리 분야인 건설업종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63.1% 증가한 1,861명의 불법취업외국인을 적발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또한, 합동단속 기간 중에 자진출국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불법체류외국인 15,728명이 스스로 출국하였다. 법무부는 2018년도에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정부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한편, 불법고용 성행지역 및 민원 빈발 외국인밀집지역 중심으로 특별단속지역을 선정 · 관리하여 국민의 일자리 보호 · 확대 및 치안 불안감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법무부는 '17. 11. 8. 구로 꿈나무극장에서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에 앞서 법무부는, '17. 9. 28.~10. 31.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정책수요자 의견을 수렴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향후 5년간의 외국인정책의 기본 설계에 대해 정책수요자와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와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연내에 확정할 예정이다.

법조협회, 제16회 법조봉사대상 시상

▲ 청주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서기 이흥종 (왼쪽 첫 번째)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 부회장: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장)는 2017. 12. 18. 대법원에서 제16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올해 제16회를 맞이한 법조봉사대상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법조계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법조계에 '기부와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법조협회에서 2002년부터 매년 수여하는 뜻 깊은 상이다. 이번 시상식에서 청주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서기 '이흥종' 등 개인 2명, 제주지방법원 봉사단체 '글로리아회' 등 단체 2팀이 봉사상을 각각 수여 받았다.

봉사상 수상자인 청주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서기 '이흥종'은 1999년부터 총 331회 헌혈을 하였으며, 소아암 어린이들의 완치를 위해 헌혈증 50매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하였다. 또한, 조혈모세포(골수) 기증등록과 헌혈유공장 최고명예대장을 수상하는 등 대한적십자사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하였다.

행복, 한 보따리 담아서: 한국의 전통시장

지난 여름호에 공지한 공존의 사진공모전 주제는 '전통시장'이었죠. 최근 늘어난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으로 더욱 많은 공존인의 호응이 있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전하며 수상작을 소개합니다. 사진 너머 느껴지는 정겨움, 맞이할 설 명절준비는 전통시장에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전통시장과 우즈베키스탄 전통 춤 **박정원**

으뜸상

The sevory smell of the sea **Joan Cane**

돋움상

할머니 인심까지 담아가세요 **Marc Carlson**

돋움상

전통시장으로 오세요 **전형우**

버금상

귀 막아요~ 뻥! 이요~ **임한솔**

버금상

장흥 토요시장의 아무진 짚신들 **임승태**

돋움상

어시장 풍경 **서용수**

돋움상

2017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

도올 김용옥 선생과 출입국의 미래를 논하다

글 **김경주** 사진 **나우연**

현재 중국의 지식인, 외신과의 일화를 통해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 세계 속의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

법무부는 2017. 12. 7.(목) ~ 8.(금)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15개 공관 주재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2017년도 출입국 · 외국인정책의 추진성과와 2018년도 정책 추진방향 등을 공유하고, 국내외 현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국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외국인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며 법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인권 존중의 외국인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회의 이튿날에는 도올 김용옥 선생을 초청해 '중국 현대사와 남북한 현대사, 그리고 이민정책에 대한 견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은 자신을 초청해 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강연이 이어지길 부탁했다. 그는 중국 현대사를 이끌어 온 여러 정치가들의 행보를 비교, 분석했고 중국 내 지식인들과 외신들과의 만남에서 있었던 일화를 풀어내며,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 세계 속의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특강 중간중간 김용옥 선생의 위트 있는 말솜씨와 열정적인 강의에 웃음과 박수가 터져 나왔고, 학구적인 분위기 속에서 질의응답이 계속 이어져 예정된 강의 시간이 초과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도올 김용옥 선생과의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 모두 함께 사진촬영을 한 뒤 이번 특강을 마쳤다.

설악산에 눈이 내리면,

속초 신흥사

설악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신흥사는 겹겹이 쌓인 산세 덕분에 사계절 어느 때 가도 아름답지만 겨울의 설경은 방문객의 할말을 잃게 만든다. 거기에 신흥사의 상징인 14.6m의 청동으로 만든 통일대불의 어깨에 내려앉은 눈을 보고 있노라면 절로 경외감이 든다.

주소: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1137
전화번호: 033)636-7044
홈페이지: www.sinheungsa.kr

문학과 독립운동이 숨쉬는,

인제 백담사

백담사는 내설악의 깊은 오지에 있어 옛날에는 좀처럼 찾기 힘든 수행처였다. 이곳은 만해 한용운 선생이 수도하며 「님의 침묵」을 발표하는 등 일제의 침탈에 항거했던 유적지로 유명하며 템플스테이 중 시를 낭독한 뒤 대화를 나누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주소: 강원도 인제군 북면 백담로 746
전화번호: 033)462-3224
홈페이지: www.baekdamsa.org

동해바다가 한눈에,

양양 낙산사

오봉산에 위치한 낙산사는 동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푸른 사찰이다. 2005년 대형 산불로 경관이 훼손되었으나 당시 기적적으로 화마를 입지 않은 16m 높이의 해수관음상의 위엄 있는 모습에서 힘을 받아 잘 복원 시켰고 갈수록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사찰로 자리매김했다.

주소: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전화번호: 033)672-2417
홈페이지: www.naksansa.or.kr

"당신도 자연입니다."

동해 삼화사

두타산과 청옥산에 둘러싸인 삼화사는 화합에 대한 염원이 담긴 천년고찰이다. 이곳에서는 범종체험도 가능한데 타종 시 은은하게 울리는 소리가 마음까지 어루만져 줘 치유되는 느낌을 준다. 무릉계곡에 자리한 삼화사에서라면 당신도 '자연' 그 자체가 될 수 있다.

주소: 강원도 동해시 삼화로 584
전화번호: 033)534-7661
홈페이지: www.samhwasa.or.kr

평창 올림픽에서 사찰 힐링까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더욱 풍성하게 즐기고 싶은 당신,
산 좋고 물 좋은 강원도에서
템플스테이 어떠세요?

전나무 숲길이 환상적인,

평창 월정사

월정사는 선덕여왕 때 창건 된 사찰로 국보 48호인 팔각9층석탑, 보물 139호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등 수 많은 문화재가 있다. 1km에 달하는 500년 수령의 전나무 숲과 함께 오대산을 상징하는 사찰이며 전나무 숲을 걸으며 참선하다 보면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 할 수 있다.

주소: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전화번호: 033)339-6800
홈페이지: www.woljeongsa.org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예약, 하이코리아 모바일 더욱 간편하게!

컴퓨터를 통해서만 예약할 수 있었던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예약이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국내 체류외국인이 언제 어디서나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발전한 모바일 방문예약 서비스로 신청해 보세요.

- **방문예약이란?**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편리한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일정을 예약하는 제도

- **방문예약제를 운영 중인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 인천, 수원, 서울남부, 부산, 양주, 청주
  출장소
  안산(안산출입국센터 포함), 세종로, 고양, 천안(아산출입국센터 포함), 평택

- **별도 앱을 설치할 필요 없는 모바일 방문예약 서비스**
  - 모바일에서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검색
  - 3개국 언어(한국어 · 영어 · 중국어)로 제공

- **접수시간** 연중무휴
- **이용자격** 하이코리아 가입회원 및 비회원
- **가능기간** 예약을 신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예약이 가능

• 체류연장허가의 경우 체류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기타 문의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